

성남시 생활예술축제 발전방안 연구

- 사랑방문화클럽축제 발전방안 -

■ 연구책임 || 고 성 영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 공동연구 || 남 동 훈 (성미산 동네연극축제 예술감독)

유 상 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정 민 혁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차장)

진 형 우 (세종문화회관 서울동네문화클럽 네트워크사업 담당)

2013. 12

서문

사랑방문화클럽축제가 2013년 올해로 7회째를 맞았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축제는 그동안 사랑방문화클럽들의 생활예술활동의 성과를 집약하고, 상징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1년까지는 사랑방문화클럽들의 축제였다면, 2012년부터는 전국 타 지역의 시민문화클럽들도 참여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방문화클럽축제는 성남시의 주요한 시민 생활예술축제로, 나아가, 국내 생활예술축제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하였습니다.

생활예술축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생활에서 느끼고 생각하던 바와 공동체의 염원을 예술적인 방법을 통해 공유하고, 소통하고, 표출하는 축제입니다. 예술적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공동체의 역사, 현실, 미래, 화합을 위해 예술적 방법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공유와 이해를 같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예술의 본래 의미와 취지로 볼 때 그동안 많은 성과와 높은 평가를 받아온 사랑방문화클럽축제는 보다 다양한 축제 콘텐츠의 개발, 클럽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동기의 부여, 클럽 중심의 축제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회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그동안 사랑방문화클럽축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향후 보다 활성화된 시민 생활예술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사라져 가는 세시풍속의 형태였던 축제의 전통을 시민사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 생활예술축제가 가진 가능성을 탐구해 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생활예술축체인 사랑방문화클럽축제가 성남시를 대표하는 지역대표축제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2013년 12월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신 선 희

〈 목 차 〉

I.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및 기대 효과	2
3. 연구 방법	4
II. 생활예술축제의 의미와 역할	5
1. 생활예술과 축제	5
1) 생활예술의 개념	5
2) 축제의 의미와 역할	10
2. 생활예술축제의 의미와 역할	17
1) 생활예술축제의 의미	17
2) 생활예술축제의 역할	19
3) 현실적인 문제들	19
4) 새로운 모색의 필요성	20
3. 생활예술축제 사례	21
1) 국내 사례	21
2) 해외 사례	34
III.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추진 과정 및 평가	41
1. 연도별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추진 과정(2007년~2013년)	41
1) 제 1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2007년)	41
2) 제 2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2008년)	44
3) 제 3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2009년)	49
4) 제 4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2010년)	49
5) 제 5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2011년)	53

6) 제 6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2012년)	57
7) 제 7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2013년)	60
2. 사랑방문화클럽축제 평가	64
1) 성과	64
2) 문제점	67
3)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향후 발전방향 제언	69
IV. 사랑방문화클럽축제 발전방안	75
1. 추진 목표	75
1) 생활예술 활성화와 축제를 통한 새로운 도시형 세시풍속 형성	75
2) 문화공동체를 중심으로 문화창조도시 형성과 지역사회 재생	76
3) 생활문화예술을 통해 시민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정체성 확인 및 공론을 형성	76
2. 추진 과제	77
1) 지역문화와 문화창조도시의 비전을 시민이 연대하여 공유하고 전파하여 새로운 도시문화의 기틀 형성	77
2) 주민주도형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통하여 문화공동체를 구조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특성과 현대도시생활의 습속에 맞춘 축제 형성	77
3) 축제의 제작 및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일상적·주체적 생활예술축제의 전형 마련	77
4) 생활예술을 통해 문화예술의 흐름이 선순환되는 구조 형성	77
3. 추진 방안	78
1) 1단계: 주민주체 공동비전 선정	78
2) 2단계: 생활예술네트워크 확대	79
3) 3단계: 문화예술활동가, 전문예술가, 기획자 결합	79
4) 4단계: 생활거점 자치 문예공간 운영	79
5) 5단계: 축제조직위원회 구성	80
4) 6단계: 국내외 교류를 통한 생활예술 확장	81
7) 7단계: 평가 및 가치 점검	82
8) 기 타	82

4.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지원 방안	84
1) 생활거점 자치공간을 중심으로 한 클럽활동	84
2) 클럽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 지원 방안	85
3) 현대도시생활의 세시풍속과 축제	86
4) 연대프로그램 지원방안	86
5) 예산안	87
6) 연도별 추진계획	88

<표 차례>

<표 1> 사랑방클럽축제 참가 클럽 및 회원수(2007~2013)	2
<표 2> 예술의 패러다임 변화	6
<표 3> 군집별 성남 클럽의 형태	8
<표 4> 생활예술 의미의 유형별 정리	9
<표 5> 지역축제의 추진주체	14
<표 6> 지역축제의 성격	14
<표 7> 은평누리축제 예산 3개년 정리	21
<표 8> 성미산마을축제와 동아리들 성장 양상	27
<표 9> 성미산마을 문화예술동아리 현황	28
<표 10> 성미산동아리축제 형성과정	30
<표 11> 성미산마을 문화예술동아리축제 ‘아리아리 동동’ 연도별 활동	31
<표 12> 일본 문화도시 사례 및 진행 중인 축제	36
<표 13> 제7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추진위원회 조직도	63
<표 14> 성남문화재단 2020 문화예술창조도시정책 단계설정	65
<표 15>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창조도시 5대정책과 사랑방클럽축제	66
<표 16> 국공립공연장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정리	72
<표 17> 축제운영 요소에 따른 운영 원리	74
<표 18> 축제운영 요소와 클럽의 운영지원 모델	85

<그림 차례>

<그림 1> 2013년 은평누리축제 포스터	22
<그림 2> 은평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과 지역문화 모델 개념도	24
<그림 3>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펀드운영의 예	37
<그림 4>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 포스터(2007)	41
<그림 5> 사랑방클럽축제 운영조직도	43
<그림 6>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2007)	44
<그림 7> 제2회 사랑방클럽축제(2008)	48
<그림 8> 사랑방클럽전(2009)	49
<그림 9> 축제추진위원회 워크숍 및 상시회의(2010)	52
<그림 10> 제4회 사랑방클럽축제 품앗이 장터 및 모금액 전달식(2010)	52
<그림 11> 제4회 사랑방클럽축제(2010)	53
<그림 12> 제5회 사랑방클럽축제(2011)	56
<그림 13> 제6회 사랑방클럽축제(2012)	60
<그림 14> 제7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부스전 및 다문화축제(2013)	64
<그림 15> 제7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 수상팀(2013)	64
<그림 16>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 수상팀 문화부 문화의 달 행사 초청공연(2013)	64
<그림 17> 사랑방문화클럽축제 민관협력 조직구성	65
<그림 18> 생활예술과 창조적 산업의 선순환 구조	72
<그림 19>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향후 단계별 추진방안(2014~2020)	78
<그림 20> 사랑방문화클럽축제 향후 조직구성도	81
<그림 21> 공간을 중심으로 한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진행모형	84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1) 시민 생활예술에 대한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의 관심과 지원이 점차적 확대 추세

- 90년대 이후 그동안 정부 문화정책과 지원사업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시민의 자생적 생활예술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면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문화부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생활예술 관련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익산, 화성, 부천, 수원, 청주 등 많은 지역에서 생활예술정책과 관련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시민 생활예술활동이 갖는 긍정적인 사회적 의미와 영향에 대해 학계, 시민사회, 문화예술계도 관심을 갖고 관련 활동들을 넓혀가고 있음

2) 2006년 이래 성남문화재단은 국내 생활예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옴

- 성남문화재단은 2006년 ‘시민이 만들어가는 문화예술창조도시, 성남’이라는 비전과 ‘생활예술활동 네트워크 구축’과 ‘문화공동체 육성’ 등을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만들기>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 2단계를 거쳐 실행해 오고 있음
-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시민의 자생적 문화예술동호회 활동 네트워크를 구축, 지원하는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을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옴
- 사업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들을 인정받아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은 국내 생활예술을 대표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3) ‘사랑방클럽축제’는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매해 9~10월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 2007년 52개 클럽이 참여한 제1회 사랑방클럽축제를 시작으로 매년 성남아트센터를 비롯한 성남시 곳곳에서 개최해오고 있음
- 매년 참여클럽이 늘어나고, 장르별 축제, 특별전시 및 공연 등 다양한 시도들을 전개해 오고 있음
- 2009년에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불가리아 등 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문화클럽

포럼’을 개최하였고 2010년에는 장르별 축제로 전국의 500여명의 색소폰 동호인이 참가하는 행사를 가짐

- 2011년부터는 축제 주제가 매년 정해지고 축제예술감독이 선임되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에는 타 지역 문화클럽들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교류활동을 시도함

<표 1> 사랑방클럽축제 참가 클럽 및 회원수(2007~2013)

(단위:천원)

구분 \ 연도별 예산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1,581	75,211	-	78,683	60,613	86,531	127,665
참여 클럽수(개)	52	78	26	157	121	94	145
참여 회원수(명)	864	1,271	320	1,687	1,306	1,260	1,740

- ※ 2009년은 신종독감 유행에 의해 축제가 취소됨. 이에 따라 전시팀의 ‘사랑방클럽전’만 개최
- ※ 2012년은 전국의 문화클럽들이 참여하는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 개최에 따라 예산이 확대됨
- ※ 2013년 총 예산은 문화부 시행 ‘2012 지역전문문화브랜드 대상 선정에 따른 문화부의 3,000만원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임(순수 성남시 출연금은 97,665천원)

4) 사랑방클럽축제의 정비와 장기적 전망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정립요구가 제기

- 지난 7년간 성남문화재단과 사랑방문화클럽의 열정과 노력으로 성남시를 대표하는 생활예술축제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함
- 사랑방클럽축제에 대한 클럽들의 참여 동기 저하,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에 대한 피로도 상승과 누적에 따른 소극적 태도 등이 발생
- 축제 프로그램이 매년 변화하고 있지만, 내용과 형식이 정형화되면서 사랑방클럽 축제 본연의 목적인 ‘시민 생활예술활동을 통한 교류와 소통’ ‘공동체 의식 제고’ 등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성남문화재단과 사랑방문화클럽에게 사랑방클럽축제가 매년 의례적으로 치러야 하는 힘들고 버거운 ‘행사’로써 여겨져 축제로서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의미들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는 사랑방클럽축제 고유의 비전과 목표 등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따라서, 장기적 전망에서 사랑방클럽축제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사랑방문화클럽과 공유하여,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및 기대 효과

1) 연구 목적

- (1) 시민 생활예술 축제로서 사랑방클럽축제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 생활예술축제의 상과 구체적 발전 방향을 모색
 - 사랑방문화클럽에게 사랑방클럽축제의 구체적 미래상을 제시, 이를 재단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명확한 축제 참여의 목적의식과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2) 사랑방클럽축제의 비전과 목표,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 사랑방클럽축제 고유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성남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시민이 만드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의 비전과 ‘생활예술 활성화’를 통한 문화공동체 육성, 발전’이라는 목표 성취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
- (3)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해소방안 제시
 -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사랑방문화클럽들의 불만, 피로도 증가, 관심 부족, 참여 동기 저하 등의 문제들을 해소하여 역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시민 소통과 화합의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
- (4) 사랑방클럽축제를 성남시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
 - 다양한 주체들의 여러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남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부재한 상태임. 성남시와 지역사회가 성남시를 대표하는 축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사랑방클럽축제가 축제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 ‘시민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 그리고 ‘성남시 생활예술의 활성화와 집약’ 등이 실현되는 성남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장기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사랑방클럽축제’가 성남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도시의 세시풍속으로 자리잡아 도시문화의 전통을 가질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해 보고자 함

2) 기대 효과

- 사랑방클럽축제의 질적 성장과 새로운 동력 부여
-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실천을 통해 사랑방클럽축제 참여 클럽의 만족도 제고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의 활력을 높이고 네트워크 확대의 효과를 기대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구성원의 다양성을 높이고 다양한 시민계층의 참여를 확대

3. 연구 방법

1) 사랑방클럽축제 관련 문헌 조사

- 역대 사랑방클럽축제 결과보고서, 프로젝트북,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관련 연구보고서 등의 조사를 통한 사랑방클럽축제의 이해와 추진과정에 대한 분석

2) 유사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한 생활예술축제의 의미와 역할 도출

- 국내외 생활예술축제 사례를 발굴, 분석, 비교하여 사랑방클럽축제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상과 방향을 모색해 봄

3) 생활예술축제 참여 전문예술가와 기획자의 참여를 통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 마련

- 성미산동네연극축제 및 시민 연극 교실 운영 등 다양하고 풍부한 시민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해 온 전문 예술가, 사랑방클럽축제 조연출로 참여한 문화기획자, 성남문화재단 축제업무 담당자, 그리고 정책업무 담당자가 TF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추진

II. 생활예술축제의 의미와 역할

1. 생활예술과 축제

1) 생활예술의 개념

- 지금까지의 예술정책은 소위 ‘전문예술’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펼쳐짐
- 이런 정책은 예술작품이 제작·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책이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새롭게 주목받는 부문이 바로 생활예술임
- 박근혜 정부는 4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생활예술의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이는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이 문화예술의 발전에 주요한 입지를 굳히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지역문화정책에 있어서도 생활예술을 토대로 한 여러 정책이 본격적으로 수립될 것으로 보임
- 그러면 “생활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생김. 이는 ‘생활예술’의 의미가 바르게 설정되어야 국가 혹은 지역문화정책에서 생활예술 정책을 심도있게 펼칠 수 있기 때문임
- 하지만 현실은 생활예술에 대한 의미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 따라서 지금까지 생활예술에 관한 국내외에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활예술의 내용을 고찰해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함

(1) 국내의 생활예술 의미

-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에서는 생활예술의 성격을 자기실현을 실현하려는 근대적 결사체로서 생활예술의 의미를 설정하고 있음

생활예술은 하나의 고유한 삶의 자원으로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주체적 조직(Self Organization), 주체적 결정(Self Determination), 주체적 표현(Self Expression)의 기회와 역량을 제공한다. 평범한 삶 속에서 자기를 실현하고 행복을 구하려 한다. 일상생활을 근거로 하는 새로운 결사체들이 수평적인 방식으로 조직되고 근대사회는 이러한 결사체들의 집합-이익집단, 직업집단 등등-으로 이루어진다. 소위 동호회(Clubs)는 이러한 근대적 결사체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남은 특히 동호회에 주목하면서 “역사적으로 동호회가 지역공동체의 근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었다”고 주장한다.

- 심보선·강윤주는 생활예술을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만남’으로 정리하는 시도를

통해 “문화자본, 즉 예술에 대한 취향과 감상 능력은 사회자본, 즉 신뢰와 소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이어 생활예술과 엘리트 예술(혹은 제도권 예술)의 차이점을 공동체성에서 발견하고자 함¹⁾

- 특히 심보선은 퍼트남의 문화자본이론에 주목하면서 ‘참여형 문화예술활동’에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조합들을 분석하였고, ‘문화소비’에서 ‘문화참여’로 이행되는 현재 사회상을 짚어내면서 이를 문화예술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보고 있음
- 박승현은 ‘목적, 주체, 예술, 성격’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면서, 생활예술의 흐름은 한국사회에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주장함²⁾
- 여기서 생활예술의 관점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생성하며 구현되는 ‘자아실현과 상호이해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음
- 또한 생활예술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자발적 시민의 문화공론장을 형성할 것이라 보고 있음
- 즉, 국가의 개입을 통해 형성 되어온 공공 공연시설 중심의 국가주도 문화공론장은 시민의 자발적 문화활동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론장을 형성할 것이며, 이 변화는 ‘생활예술’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음³⁾

<표 2> 예술의 패러다임 변화

	고급예술의 관점	도구예술의 관점	생활예술의 관점
목적	예술 그 자체	비예술적 목적(경제 발전, 정치적 선전)	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과 상호이해
주체	전문 창작가, 비평가, 애호가	경영자, 정치가, 기획자	시민-예술가, 예술가-시민
예술	송배의 대상	기능적 수단	창의적인 과정
성격	문화자원-차별논리	동원자원	사회자본-연계적

자료출처 : 참여형 문화예술, 심보선/강윤주, 경제와 사회, 2012

- 전수환은 문화예술정책의 관심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생활예술에 있어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민성, 지역성, 예술성’의 관점에서 제시함⁴⁾
- 이는 시민들을 문화예술의 주체로서(시민성) 지역의 구체적인 과제를 해결하고(지역성), 예술시장주어나 문화산업 관점의 예술과는 다르게 생활에 밀접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공동체적 관점(예술성)을 형성하는 것에 초

1) 참여형 문화예술, 심보선/강윤주, 경제와 사회, 2012

2) 박승현은 또한 <시민의 자발적 문화활동과 문화공론장의 구조변동에 관한 연구>에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양상은 커뮤니티 지향, 사회공헌 지향, 생활예술 지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생활예술의 가장 큰 특징을 ‘자발성’에서 찾고 있음

3) <시민의 자발적 문화활동과 문화공론장의 구조변동에 관한 연구>. 박승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4) <생활예술의 발견>, 전수환, 아르코, 2011

점을 맞추고 있음

(2) 해외의 생활예술 의미

- 영국의 경우 시민의 예술활동을 ‘Voluntary Arts:자발적 예술’로 정의함
 - 자발적 예술은 자기 개발, 사회적 유대, 여가와 유흥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비전문적 예술을 의미함
 - 그러면서 자발적 예술은 “일반인들이 자기 개발, 사회적 유대, 여가와 유흥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비전문적 예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용, 드라마, 문학, 음악, 미디어, 시각예술, 수공예, 전통 예술, 축제들의 형태로 구현된다.”고 정리함⁵⁾
- 미국에서는 생활예술을 ‘비공식 예술(Informal Arts)’로 부르고 있음
 - 공식 예술(Formal Arts)은 소위 예술계(뮤지엄, 갤러리, 극장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형식적이고 조직화된 전문적이고 예술 활동을 의미하는데 반해 비공식 예술(Informal Arts)은 “구조화되지 않은 공간들(길거리 또는 주택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이고 비고정적인 예술 활동”을 의미한다 “고 정리함⁶⁾
 - The Chicago Center for Arts Policy at Columbia College(CCAP)는 “비공식 예술은 예술에 대한 향유와 참여의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이제 일반인들은 관객으로서만 예술을 접하지 않는다. 비공식 예술은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적 유대 모두를 강화함으로써 공동체의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밝힘⁷⁾
 - 미국 비영리단체인 Cultural Initiatives Silicon Valley(2004)는 ‘참여 예술(Participatory Arts)’이라는 용어로 생활예술을 이해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전문적인 공연, 미술, 문학, 미디어를 관람하는 것과 구별되는 일상적인 예술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예술적 표현을 의미한다고 정리함⁸⁾
 - Moriarty. P(2004)는 “예술은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가족적 유대를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연결고리를 창출하는” 실용적인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밝힘⁹⁾

(3) 성남시의 생활예술 의미

- 성남문화재단은 2006년에 ‘성남시 사랑방 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시행하여

5) <성남문화재단 2단계 5개년 발전방안연구>, 성남문화재단, 2009
 6) The Chicago Center for Arts Policy at Columbia College(CCAP)에 의해 제안
 7) <성남문화재단 2단계 5개년 발전방안연구>, 성남문화재단, 2009
 8) 상계서
 9) 상계서

1,103개의 문화클럽을 발견함

- 특히 클럽형성시기, 활동 지역, 운영방식, 연령층을 조사한 결과, 사랑방클럽의 4가지 군집형태를 <표3>로 구분함¹⁰⁾

<표 3> 군집별 성남 클럽의 형태

	1군집	2군집	3군집	4군집
특징	정보교류 중심	친목활동 중심	지역사회 기여도 높음	발표 중심
	타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관심 낮음	타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관심 낮음	타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관심 높음	타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관심 높음
	직장인, 여성, 주부 비중 높음	20대 비중이 높음	20대에서 40대까지 골고루 활동	30-40대 비중 높음
	수직적,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모두 낮음	수평적 보다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활발	수직,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활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활발
	전문가를 통한 기능 습득, 관심사에 집중	정보교류에 관심 집중	오래되고, 전문가들의 모임 많음	군집3보다 사회참여 적음
클럽의 형태	배움클럽	친목클럽	공헌클럽	숙련클럽

- 성남문화재단은 생활예술의 개념을 “순수예술, 고급예술, 전문예술, 엘리트예술, 공식예술 중심의 근대적인 예술 개념 및 체계로부터 벗어나 자발적인 관심과 동기에 의한, 전방위적인 공간 및 영역에서 펼쳐지는, 아래로부터 생성되어 솟구쳐 오르는 예술적 실천”으로 정리하고 있음¹¹⁾
- 또한 생활예술 활동의 궁극적인 지향목표를 “ ‘예술 그 자체’도 아니고 경제발전이나 정치적 선전과 같은 ‘비예술적 목적’도 아니며, 생활예술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자아 실현과 상호이해, 그리고 나아가서는 해당 공동체를 감싸고 있는 더 커다란 공동체의 성숙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시함¹²⁾

(4) 국내의 “생활예술” 보편적 개념 정리

- 지금까지 살펴본 ‘생활예술’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0)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성남문화재단, 2006
 11)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연구>, 성남문화재단, 2013
 12) 상계서

1. 소위 직업적 예술가(전문예술가), 예술교육기구, 예술단체 등의 활동보다는, 예술활동을 수행하는데 특별한 자격요건을 필요하지 않는다.
2. 자발적 활동으로 예술활동을 펼치는데 그 목적이 예술성의 실현에 있기보다는 예술을 통해서 자아실현과 상호이해를 통해 사회활동영역으로 확대하는데 있다
3. 상호간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하며, 또한 커뮤니티의 구성 및 활동을 통해 ‘주체적 조직, 의사결정, 표현’을 자유롭게 펼친다.

○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성남문화재단에서 정리한 내용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표4>¹³⁾과 같이 생활문화예술클럽들의 성향을 유형별로 그룹화한 결과와 대조해 보았을 때 각 부문별로 부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상당함을 알 수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음

<표 4> 생활예술 의미의 유형별 정리

성남 문화클럽의 유형		생활예술 성격구분			
		배움클럽	친목클럽	공헌클럽	숙련클럽
생활예술 성격구분 ¹⁴⁾	주체적 조직	○	○	○	○
	주체적 결정	△	○	○	○
	주체적 표현	○	○	○	○
심보선,강윤주 구분 ¹⁵⁾	사회자본으로서 공동체성 구현	△	○	○	○
박승현 구분 ¹⁶⁾	자아실현과 상호이해 목적	△	○	○	△
	예술가와 시민의 상호간 교류성	○	○	○	○
	예술의 창의적 과정 목적	△	△	○	○
전수환 구분 ¹⁷⁾	시민성	○	○	○	○
	지역성	○	○	○	○
	예술성	△	○	○	○
합계	총점: 20점	16점	18점	20점	19점

(3단계 구분법 - ○:부합가능(2점), △:부합낮음(1점), X:판단불가(점수없음))

13) <사랑방문화클럽 발전방안연구>, 성남문화재단, 2006

14)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부분 인용

15) <참여형문화예술?, 심보선/강윤주, 부분 인용

16) <문화예술과 여가를 통한 국민행복>, 박승현, 문화관광정책연구원 토론회 자료집(2013) 부분인용

17) <생활예술의 발전>, 전수환, 아르코, 2011

- 이처럼 생활예술정책의 구체화를 요구 받고 있는 현재에 이르러 국내외 생활예술에 관한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생활예술의 정의와 영역’이 정리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시민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활동과 목적의 다변화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임
- 그러므로 이번의 연구에 있어서 “생활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질문은 학리적·정책적 목적으로 설정된 각기 다양한 준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지역적, 태생적, 경제적 등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조건을 갖고 있고, 활동목적의 고유 의미와 역사성 등 상당 부분이 상이한 특성이 존재하는 것이 생활예술임의 근본적 특성임을 반영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생활예술 의미의 정리에 있어서는 성남문화재단의 조사척도에 따른 「배움클럽, 친목클럽, 공헌클럽, 숙련클럽」이 내포하고 있는 성질 및 척도를 「생활예술의 형태와 속성」으로 이해함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봄¹⁸⁾

2) 축제의 의미와 역할

(1) 기원과 개념

- 축제는 흔히 ‘축(祝)과 제(祭)가 포괄적으로 표현되는 문화현상으로’, 사전적 의미는 ‘축하와 제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네이버 국어사전, 국립국어원 제공)로 정의할 수 있음
- 한편, ‘축제’를 의미하는 영어 ‘festival’은 어원학적¹⁹⁾으로 라틴어 ‘festum’에서 비롯함
 - 라틴어에서 ‘축제적인 행사’ (festive event)를 가리키는 것으로 두 개의 용어가 있는데, ‘festum’은 공공의 즐거움, 환락, 흥청망청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인 ‘feria’는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일(work)로부터 떨어져 ‘쉽’을 뜻함²⁰⁾
 - 따라서 어원학적으로 볼 때, 축제의 핵심 개념은 ‘종교적 신성성’과 ‘놀이’라고 정리할 수 있음

(2) 축제 개념의 형성

- 축제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기존의 대표적인 축제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종교적

18) 조사척도는 『배움활동, 친목활동, 정보교류, 전문가적 관심, 발표활동, 클럽간 교류, 지역사회 기여』로 나눔

19) 한편 류정이는 ‘성일(聖日)’ 뜻하는 ‘festival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 (류정아, 2003: 7)이라고 하며, 이미순은 “‘festival’은 원래 feast라는 어원에서 festival이라는 단어로 변화되었는데, ‘feast’는 아주 양이 많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라는 뜻이 강한 반면 ‘feastival’은 문화나 음악축제보다는 종교적 축제라는 의미가 강함. 이 두 단어 모두 여러 종교의 신(God)이나 신들(Gods)을 존경하고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생겨난 것이다.”라고 설명함(이미순, 2010: 2-3)

20) <대안적 마을공동체에 있어서 축제의 의미와 기능>, 송지선,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12

신성성' 과 '놀이' 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음

① 신성한 가치, 집단소통, 사회통합

- '종교적 신성성' 이라는 축제의 종교적 기원과 관련해서 의례적 관점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음
- 우넨뷔르게는 <축제와 놀이와 신성성>(1988)이라는 책에서 축제의 의례적인 성격을 고대적인 축제를 통해 설명하고 있음
- 그에 의하면 대부분의 축제는 특정한 복장이나 가면 등의 의례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의식이나 행렬, 음악, 춤 등을 통해서 특정한 형식을 따르게 된다고 봄
- 특히 이것은 계절적인 순환이나 종교의식, 특정한 역사적 사건의 기념식 등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고 봄
- 우넨뷔르게는 이러한 특징들이 모두 고대적인 제도적 형태에 기반하고 있으며, 해당 사회의 의례적인 상황들과 연결된 '신성한 놀이' 로 설명될 수 있다고 봄
- 고르동은 축제를 신성성이 부여되는 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축제는 인간을 신성한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서 초자연적인 것과 접촉하게 함으로써 원시적인 것에 인간의 사고를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보았음²¹⁾
- 이잠베르는 축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감성의 표현 형태를 가지게 되며, 축제에서의 집단적인 고양에 의해서 신성한 경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²²⁾
- 이것은 '신성한 가치를 추구하는 공적이며 집단적인 소통' 의 기능과 이를 통한 '강력한 사회통합력' 의 기능이라는 사회적 의미로 연결됨

② 놀이, 일탈, 재구성

- 한편,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호이징가는 <호모 루덴스>라는 책에서 인간의 유희적 본성이 문화적으로 표현된 것이 축제라고 함²³⁾
- 놀이는 비일상적, 비생산적인 것이지만, 일상과 생산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임²⁴⁾
- 호이징가의 견해를 더욱 발전시킨 미국의 신학자 하비 콕스는 <바보들의 축제>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고하는 인간(Homo sapiens)'일 뿐만 아니라 '놀이하는 인간(Homo ludens), 축제하는 인간(Homo festivus), 환상적인 인간(Homo fantasia)'이라고 말하면서 "축제는 평소에 억압되고 간과되었던 감정표현이 일정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허용된 기회"로서 그 속에는 세 가지의 근본적인 요소가 존

21) <축제 인류학>, 류정아, 살림출판사, 2003

22) 상계서

23) <호모 루덴스>, 요한 호이징가 저/이종인 역, 연암서가, 2010

24) <축제 인류학>, 류정아, 살림출판사, 2003

재하는 것으로 보았음²⁵⁾

- 그가 제시한 세 가지는 환락이나 환상의 추구, 축제를 통한 삶에 대한 긍정성,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임²⁶⁾
- 축제에 있어서 '놀이' 의 개념과 속성은 근대(modern)로 접어들수록 더욱 강조되는데, 로제 카이와는 <놀이와 인간>에서 놀이를 하는 '정신' 은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 활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지적 발달과 정신교육에 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았음²⁷⁾
- 장 뒤비노는 <축제와 문명>에서, 놀이와 축제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인간은, 불가능한 것을 좇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내려는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비로소 '인간' 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축제와 놀이를 인간 정체성의 본질로 바라보는 하비 콕스의 관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음²⁸⁾ 이 점은 바로 '자아의 해방' 과 '살아있음에 대한 체험' 이 축제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3) 축제의 의미와 역할

- 축제에 관한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축제는 어원적으로는
- 개인적이 아닌 공공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 놀이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 일상적인 시공간과는 구분이 되는 행사로,
- 신과 관련해 있거나 신성성을 담보함
- '종교적 신성성' 과 '놀이' 라는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 집단적 고양과 신성한 경험
- 놀이를 통한 인간 존재의 구현
- 이러한 목표는 사회적으로는
- 집단소통과 사회통합
- 자아해방과 일탈, 삶의 재구성으로 구체화됨
- 결국, 축제의 의미와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인간은 축제를 통해 일상에서의 일탈,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임
- 이는 곧 축제 이전의 삶, 관계, 집단과 축제 이후의 삶, 관계, 집단이 달라진다는 것임
- 즉, 인간은 축제를 통해 삶과 관계, 그리고 사회를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임²⁹⁾

25) 상계서

26) <축제 속의 프랑스, 프랑스 속의 축제>, 김미연 외, 궁미디어, 2012

27) <축제 인류학>, 류정아, 살림출판사, 2003

28) 상계서

(4) 현대 사회에서의 축제의 의미와 역할

- 이상에서 살펴 본 축제의 의미와 역할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축제의 본질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 또 그런 이유로 오늘날 축제는 더욱 각광을 받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축제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³⁰⁾
 - 이는 상당히 유의미한 현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축제의 힘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을 반증함
 - 하지만 그 요구와 필요성의 크기만큼, 축제의 본질과 역할이 충실하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해볼 필요가 있음

① 지역축제의 역할

- 현대사회에서 지역축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함
-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축제들을 살펴보면 파악할 수 있는데 대략 다음의 다섯 가지 역할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음
 -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재창조하는 역할
 -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키고 재확인시키는 역할
 - 일상적인 삶의 질적 수준을 고양시키는 역할
 - 도시민들에 대한 새로운 여가활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
 -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부분적 또는 상당한 정도 기여하는 역할³¹⁾
- 이상에서 제시한 지역축제의 다섯 가지 중요한 역할들은 축제를 만드는 해당 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과 역사성, 지역적 요구에 따라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② 지역축제의 추진 주체³²⁾

- 지역축제는 추진주체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범주화시킬 수 있음

29) 이 점에 대해 리치는 축제에 들어가는 일반인들은 본래의 자신의 세속적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상실하고 의례적으로 '죽게 된다'고 이야기 함. 이렇게 죽어있는 '신성한 시간' 동안 그는 다른 모든 이들과 진정한 우정과 평등성을 을 획득하고 일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에서 벗어나게 됨. 이 순간 시간의 흐름은 멈춰서고 개인은 무한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순간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곧 그는 현실적인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됨. 즉 일상의 세속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임. 그러나 의례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기 전의 삶과 그 상황을 거쳐 나온 개인의 삶의 양태는 많은 차이를 갖게 됨. 기존 사회가 가지고 있던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극복해서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획득하기도 함(류정아 <축제 인류학> 중)

30) 2011년도 9월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한 축제의 수는 모두 795개임. (<한국축제와 지역문화콘텐츠>, 류정아, 2012 중)

31) 상계서

32) 서울시의 경우, 축제의 추진주체에 따라 1) 서울시 본청에서 자체 추진하는 축제, 2)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축제, 3)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마을단위 축제 4) 순수민간축제(민간)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그리고 장기적인 축제발전 방향의 하나로 축제의 주체를 점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표 5> 지역축제의 추진주체

구분	특성
관 단체 (광역/기초자치단체) 주도형	축제의 규모를 키울 수 있고, 예산, 추진력 등에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는 있음. 하지만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 지역 내 정치, 경제, 사회적 논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
지역문화재단 주도형	지역 내 문화재단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는 민간 주도형임.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상대적 자율성, 기획력, 운영방식, 의사결정 구조 등의 재단 역량, 축제의 성숙도 등에 따라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민간 주도형	순수민간 주도형으로 참가자 주도형임. 좀 더 세분화하면 시민/주민 주도형과 활동가 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음. 상대적으로 소규모이지만, 축제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임. 참가주체 중심의 상향식 의사소통 및 결정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주체적 참여와 만족도가 가장 높은 형태라고 볼 수 있음. ³³⁾
복합 주도형 (민간거버넌스형)	관과 문화재단, 민간의 복합 주도형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보통 지역과 주민들의 정치, 사회, 문화적 역량이 성숙한 지역에서 볼 수 있음.

③ 지역축제의 성격

-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단일한 범주로 묶어낼 수 없는 중층성과 복합성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분류하기는 어려움
- 하지만 기획취지, 축제의 아이템, 방향성, 테마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대략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음

<표 6> 지역축제의 성격

구분	특성
문화예술축제	미술, 무용, 음악, 연극, 영화 등 특정 예술장르 혹은 예술가를 주제 혹은 소재로 삼고 있는 경우임.
전통문화축제	전통문화의 복원과 현재적 적용을 기반을 두고 지역 고유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적 아이টে을 갖고 있는 경우임.
지역특산물축제	지역의 전통적인 특산물의 전시판매와 문화상품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경우임.
지역특성화축제	지역의 자연, 인공적 특성을 아이টে으로 개발한 경우임.

④ 지역축제의 한계

- 지역축제에 있어서 축제의 역할은 해당 지역의 상황과 특성, 그에 따른 욕구에 따

33) 2012년 현재 서울시의 경우, 자체추진 축제는 46개, 자치구 추진 축제는 89개, 마을단위(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축제는 74개, 민간축제의 경우, 개최 사실이 확인된 축제를 모두 합하면 78개임

라 그 우선순위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함

- 그런데 이 지점에서 가시적, 외형적 성과를 앞세운 전시행정 차원의 접근이나 지나치게 상업적,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서 접근하는 경우, 많은 폐해가 발생할뿐더러 축제의 기본적인 정의마저 흔들리게 됨³⁴⁾
- 지역축제의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관 주도형 축제의 남발로 인한 상부하달식 축제 추진의 문제
 - 일회성 이벤트행사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낭비의 문제
 -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부족과 참여방식에 대한 논의 부족
 - 과도한 관광상품화에 따른 진정한 축제정신의 결여
 - 역사적, 지역적, 전통적 고유성을 담은 축제문화 전수의지의 부족
 - 줄속 진행으로 인한 축제의 획일화의 문제
- 특히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참여방식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³⁵⁾
- 이처럼 시민/주민들의 자발적이며 주체적인 참여의 부재는 축제의 주체가 소외되는 것으로, 곧 ‘축제의 죽음’을 뜻함. 결국 사회구성원들의 ‘공적이며 집단적인 소통’과 ‘사회통합’, ‘자아의 해방’과 ‘살아있음에 대한 체험’이라는 축제의 본질을 생각할 때, 축제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시민/주민들의 자발적이며 주체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

(5)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

- 이 지점에서 공동체축제에 관한 다음의 연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 한양명은 공동체축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함³⁶⁾
 - 일상과 일정하게 분리된 시공간에서 행해지는 집단적 활동
 -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일상과 순환적인 관계에서 시간을 질서화, 체계화하는 활동
 -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가지며 그 형식과 내용은 반복성과 지속성을 갖는 활동
 - 제사, 놀이, 예술 등의 다양한 인간 활동을 포괄하며 주체가 여기에 몰입하여 흐름을 체험함으로써 자기 존재의 의의를 자각하고 고양시킬 수 있는 활동
 - 일상적 차별의 약화와 무화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연대를 촉진하고 집단에 대한 귀속감을 강화하는 활동
 - 주체적,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일상의 삶을 갱신할 수 있는 활동

34) 특히 오늘날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철저하게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기획하는 이벤트나, '산업이나 기술 따위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 공업, 상업 등에 관한 물품을 모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모임'인 박람회(博覽會), '여러 가지 물품, 또는 작품들을 진열해 놓고 보이는 모임'인 전람회(展覽會)까지도 축제로 분류하는 등, 축제란 용어를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현실적 정의에 어려움이 있음(<한국 축제의 명칭과 변용에 관한 고찰>, 박동준, 2006)

35) <축제가 도시 브랜드를 만날 때>, 이미순, 세로미, 2010

36) <축제와 놀이>, 한양명, 월인, 2000

- 공동체축제에 관한 이상의 정의는 “축제 육구의 충족과 의미 생산의 문제를 주체의 선택과 의지에 연동된 것”³⁷⁾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축제 개편을 지역경제성 확립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충분조건으로 단정짓고 지역축제를 양산하는 현실을 적합하게 비판하고 있음³⁸⁾
- 특히 '주체가 여기에 몰입하여 흐름을 체험함으로써'라고 적시한 부분은 앞서 언급한 지역축제 폐해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참가자들의 자발적이면서도 주체적,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
-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음

- 축제의 범위가 넓을수록 축제 참가자들의 익명성의 확률은 높아진다.
- 참가자들의 익명성이 높을수록 주체의 자발성과 적극적 참여의 확률은 낮아진다.
- 이때, 연대의 필요성은 높아지는 반면, 연대의 질은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

- 축제의 범위가 좁을수록 기명성의 확률은 높아진다.
- 주체의 자발성과 적극적 참여의 확률은 참가자들의 기명성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 이때, 연대의 가능성은 높아지며, 연대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다.

- 여기에서 기명성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보고자 함
 - 현대 도시공동체에서의 기명성은 마을공동체 혹은 전근대 사회에서의 기명성과는 다른, 좀 더 확장된 의미의 개념이어야 함
 - 즉 작은 단위의 마을공동체 혹은 전 근대 사회에서의 동리 개념에서는 면대면 인식이 가능한, 그것이 곧 기명성이겠지만, 오늘날 높은 인구밀도와 잦은 전/출입, 상호의존도가 낮은 삶의 관계망에서 면대면 인식은 불가능함
 - 따라서 동아리 단위의 면대면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작은 단위 간의 상호인식과 호혜활동을 통한 광의의 기명성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어느 동네 어느 문화예술공동체 소속이다’라고 하면 서로 알아봐주는 형식, 즉, 소속 단위간의 상호인식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작은 단위 간의 상호인식은 축제를 통한 연대 및 호혜활동, 관계망의 확장과 성숙, 시간과 경험의 누적을 통해 점차 면대면 인식으로 확장됨
 - 따라서 축제는 작은 단위의 기명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축제의 시공간과 활동을 매개로 기명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함
- 그렇다면 참가자들의 자발적이면서도 주체적, 적극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축제의 대안은 다음 3가지 요소를 연동해서 파악해야만 접근할 수 있을 것임

37) <축제민속지 작성을 위한 구상>, 한양명,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민속연구' 제12권, 2013

38) <대안적 마을공동체에 있어서 축제의 의미와 기능>, 송지선,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12

- 주체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
- 주체의 연대
- 축제의 범위
- 결론적으로 ‘자발적 주체’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망을 기초로 한 작은 단위에서 성장, 발전함
- 이 작은 단위 관계망 사이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서야만 ‘축제의 범위’는 건강하게 확장될 수 있음
- 이때, 축제에서 ‘자발적 주체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해지고 공동체축제는 자기본질을 확보하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임
- 이 지점에서 공동체축제의 새로운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임

2. 생활예술축제의 의미와 역할

-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생활예술의 개념과 정의는 포괄적이며 다양하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음
- 한편, ‘생활예술축제’를 주제 혹은 소재로 특정해서 진행된 학계의 논의나 기존의 연구 성과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따라서 생활예술축제의 의미에 대한 개념화된 진술 또한 찾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생활예술축제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생활예술’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축제’의 보편적 개념을 바탕으로, 개념적 완성형이 아닌 지향적 이념형으로서 접근하고자 함

1) 생활예술축제의 의미

(1) 공동체축제의 현대적 개념

- 앞에서 살펴본 기존 지역축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대적 관점의 공동체 축제에 관한 논의³⁹⁾를 살펴볼 때, 현대의 공동체축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 일상과 일정하게 분리된 시공간에서

39) 축제의 의미와 역할 중 한양명의 공동체 축제에 대한 정의로 다음과 같음

- (1) 일상과 일정하게 분리된 시공간에서 행해지는 집단적 활동
- (2)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일상과 순환적인 관계에서 시간을 질서화, 체계화하는 활동
- (3)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가지며 그 형식과 내용은 반복성과 지속성을 갖는 활동
- (4) 제사, 놀이, 예술 등의 다양한 인간 활동을 포괄하며 주체가 여기에 몰입하여 흐름을 체험함으로써 자기 존재의 의의를 자각하고 고양시킬 수 있는 활동
- (5) 일상적 차별의 약화와 무화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연대를 촉진하고 집단에 대한 귀속감을 강화하는 활동
- (6) 주체적,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일상의 삶을 갱신할 수 있는 활동

- 주체적, 적극적 참여를 통해 자기 존재의 의의를 자각하고
- 집단에 대한 연대감을 강화하여
- 일상의 삶을 갱신할 수 있는 활동

(2) 생활예술축제의 정의

- 앞서 언급한 생활예술, 축제, 공동체축제 등 다양한 정의들을 정리하여 ‘생활예술축제’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음

■ 생활예술축제

- 자발적인 예술활동을 향유하는 시민/주민이 주체가 되어 일상과 일정하게 분리된 시공간에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행하는 집단적 활동으로 이를 통해 자기 존재의 의의를 자각하고, 집단에 대한 연대감을 강화하여 일상의 삶을 갱신할 수 있는 활동

- 위 정의에서 주체, 시공간, 주기성 등의 개념을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주체: 자발적 예술활동을 향유하는 시민/주민
 - 지역 내 문화예술공동체 활동을 향유하는 시민/주민
 - 지역 내 직장 문화예술공동체 활동을 향유하는 시민
 - 지역 내 시민/주민 문화예술공동체 및 직장 문화예술공동체와 결합해서 활동하는 전문예술가 혹은 전문예술가 집단
- 시공간: 일상과 일정하게 분리된 시공간
 - 시간: 일상적 삶의 시간 중 특별하게 선택되어 시간으로 축제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과 그 누적을 포함함
 - 공간: 기존의 공간 개념을 벗어나 축제를 통해 재구성된 공간⁴⁰⁾. 이는 축제를 통해 일상의 공간이 새롭게 의미화가 됨을 뜻함. 즉,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소통되는 형식으로서의 공간임⁴¹⁾
- 주기성: 현대사회의 생활주기와 생애주기, 사회적 절기 등을 고려한 새로운 의미의 공동체 세시풍속의 의미함
 - 공동체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고 또 동의하는 삶의 리듬과 생활주기, 생애주기와 사회적 절기를 반영한 것임
 - 즉, ‘우리는 매해 이맘때 어딜가서 무엇을 한다’라는 공동체의 사회적 약속임

40) 경험적으로 공간의 의미는 종종 장소의 의미와 융합되지만, 공간은 장소보다 추상적임. 무차별적 공간은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장소가 됨. 즉 경험을 통해 아무런 의미없던 추상적 공간이 의미로 가득한 구체적 장소가 됨(<공간과 장소>, 투안, 이무 저/구동희, 심승희 역, 대운, 2005)

41) <마을공동체 형성,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집단학습에 관한 연구:성미산마을을 중심으로>, 유민선,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1

2) 생활예술축제의 역할

- 생활예술축제는 앞서 정의한 축제의 개념을 구현하는 장(場)인 동시에 생활예술생태계 차원에서 필수적임
- 왜냐하면 축제는 시민의 생활예술 역량이 개발되고 연결되고 표출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임
-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한 생활예술축제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생활예술축제의 역할

-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민생활예술 역량의 표출과 성장
- 주체들의 연대와 확산
- 이를 통한 지역문화발전

- 생활예술축제에 관한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성남의 <사랑방문화클럽축제>를 들 수 있음
- 2006년의 사전작업을 기초로 2007년부터 시작한 <사랑방네트워크사업>, 이를 바탕으로 한 <사랑방문화클럽축제>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펼쳐나가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구현’을 목표로 한 성남 생활예술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자리잡았음
- 2007년부터 시작한 <사랑방문화클럽축제>는 그 목적과 기대효과를 통해 생활예술축제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시사하고 있음

‘시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창조해나가는 시민의 축제’로

□ 목적

- 성남지역에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클럽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클럽의 단계적 성장 제고
- 성남지역 클럽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 제고

□ 기대효과

- 문화클럽의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기여
- 성남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자발적 참여 제고
- 성남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기반구축, 지역문화 발전 기여

※자료출처: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정관, www.snart.or.kr, 성남문화재단 자료실

3) 현실적인 문제들

- 그러나 참가자들의 자발성과 연대에 있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고민과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성남의 경우, 그간의 사업진행과정에서 개선과제가 발생했음을 또한 밝히고 있음⁴²⁾

- 개별 클럽활동은 강한 자생성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함. 반면, 클럽 간 네트워크 활동의 자생성과 자발성은 기대치보다 미흡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에 대한 클럽들의 주인의식은 아직 약한 수준
- 이는 재단이 원하든, 원치 않든 결국에는 재단의 개입도를 높이는 상황을 발생시킴. 이는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의 자치력과 의사결정권을 약화시키고 재단이 제시하는 사안에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옴
- 재단의 개입과 지원없이 클럽 스스로가 상호 네트워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의지와 실행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는 사랑방문화클럽사업이 개선해야할 핵심과제 중 하나임

- 즉, 중요 개선과제의 핵심을 <사랑방문화클럽활동>의 자생성과 자발성, 연대의 질 담보와 확대에 요약할 수 있음
- 이 문제점은 공교롭게도 앞 장에서 지역축제가 지닌 한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밝힌 ‘자발적 참여’와 ‘참여방식’ 즉, ‘연대’에 대한 논의 부족이라는 점과 일치함

4) 새로운 모색의 필요성

- 성남의 <사랑방네트워크사업>과 <사랑방문화클럽축제>는 치밀한 이론적 토대 위에 수립한 장기적이고도 단계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상상적 실제’가 ‘실제적 실제’로 현실화,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형태임
- 따라서 이상과 현실, 지향과 실천 사이의 괴리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
- 한편, 성남의 생활예술정책은 치밀한 계획만큼이나, 사업진행에 따른 결과와 평가가 객관적, 구체적이며, 평가에 따른 보완작업이 지속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가장 큰 강점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3단계 발전계획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앞장에서 논의한 공동체축제의 대안적 접근에서 제시한 ‘주체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 ‘주체의 연대’ ‘축제의 범위’ 라는 세 가지 요소의 연동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음

42) <사랑방문화클럽의 성과와 문제점>, 고성영, 문화부 지식공유포럼 자료집 중, 2012

3. 생활예술축제 사례

1) 국내 사례

(1) 은평누리축제

① 주요 내용

- 서울시 은평구의 ‘은평누리축제43)’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연출하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서 ‘참여,소통,화합의 은평누리축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며, 지역주민이 축제추진위원회를 형성하여 자치구와 함께 논의하고 개최하는 ‘상향식 논의 전개 구조(Bottom-up)’의 형태로 진행함
- 은평누리축제는 서울시 은평구 지역내 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인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이하 은지네)’가 주축이 되어 진행되며, 구민의 날 행사와 함께 치러짐44)
- 은평누리축제의 예산은 자치구 본예산으로 집행됨
 - 2012년 211,940천원으로 1회축제 예산으로 상정되어 집행되었고, 2012년 누리축제의 경우 구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축제가 무산될 뻔했으나, 이후 추경을 통해 190,100천원이 집행되었고, 2013년 축제는 186,400천원의 본예산으로 집행됨

<표 7> 은평누리축제 예산 3개년 정리

은평누리축제 연도별 예산액	2011 (1회축제)	2012 (2회축제)	2013 (3회축제)	비고
금 액 (단위:천원)	211,940	190,100	186,400	

- 2013년 축제는 크게 2개의 사전행사, 10개의 분행사, 16개의 연계행사로 구분되는데, 사전행사로는 ‘서울마당극제’를 유치하였고, 본 행사로는 ‘과발걷기대회’,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한마당’, ‘공동체예술작품 전시회’, ‘청소년예술제’, ‘생활체육한마당’ 등으로 진행했으며, 연계행사로는 ‘주민참여예산총회’, ‘북콘서트’, ‘평생학습축제’, ‘웹툰작가 초청강연’ 등을 진행함45)

43) 은평누리축제의 취지는 본래 “구민의 날을 맞아 구민이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여 문화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참여와 화합의 축제한마당을 통하여 일상의 삶을 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함.”이라 밝히고 있음(은평구청 홈페이지 <http://www.ep.go.kr/>)

44) 은평시민의신문 홈페이지 http://www.epnews.net/sub_read.html?uid=12383§ion=section3 참조

45) 은평누리축제 페이스북 www.facebook.com/nuricarnival 참조



<그림 1> 2013년 은평누리축제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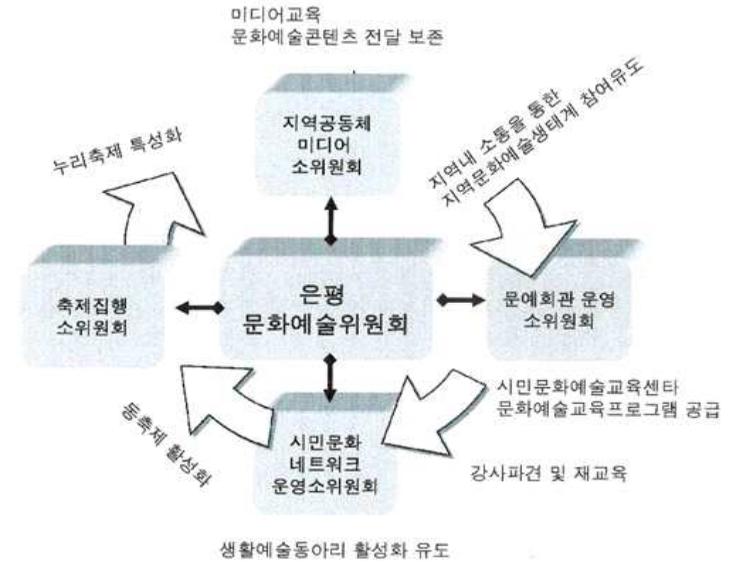
은평누리축제 페이스북 www.facebook.com/nuricarnival

② 축제 특징

-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축제로 형성
 - 은평누리축제는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지역주민축제를 제작하는 외관을 갖추었음이 주요한 지점임
 - 2004년부터 시작된 어린이잔치한마당, 그리고, 2009년 은평지역 내의 주민주체 지역문화만들기 사업으로 상상축제, 은평문화지기 양성교육, 지역문화 실태조사, 주민문화의식조사, 은평문화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이 이어져 왔고, 그 주체들이 함께 축제추진위원46)으로 참여함47)

46) ‘은지네’를 주축으로 자치구와 함께 축제를 제작하면서, 2013년 약 60여명의 축제추진위원회를 결성

- 주민 일상문화를 담아내는 제도적 틀 ‘은평 문화예술위원회’ 를 운영
 - 은평누리축제는 주민의 일상적 활동을 논의하고 축제로 담아내는 제도적인 틀로서 ‘은평 문화예술위원회’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구의회에서 발의하여 관련 조례가 문화예술위원회 설치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됨(2011.8)⁴⁸⁾
 - 이후 『은평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서는 지역 주민이 더 이상 문화 예술 활동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보고서에서는 현행 문화예술의 공급형 정책이 지역주민의 참여와 만족도를 크게 높이지 않고 있음에 주목
 - 또한 지금까지 문화행정은 문화예술의 공급형 정책에 치중하여 왔으나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나 만족도는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강좌운영 등),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역 축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지역.미디어(EBN 등) 등의 사업들이 나열적으로 진행됨을 지적함
 - 은평누리축제는 2010년 축제부터 주민참여형 축제를 지향하고 있고,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⁴⁹⁾
- 생활예술동아리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관 간 밀착
 - 자치구,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 애프터센터, 평생학습관 등 문화기관의 협조를 통해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축제프로그램을 도출할 수 있었음
 - 특히 은평주민들이 준비하고 참가하는 축제에 있어서 행정조직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음은 주지할만한 부분임
 -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으며, 주민워크숍을 통해 축제를 추진함
 - 생활예술동아리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의 중심에 ‘문화예술위원회’가 중심에 위치하고 네트워크 및 지역축제등이 이를 중심으로 상호간 소통하는 전략적 모델을 수립함⁵⁰⁾



<그림 2> 은평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과 지역문화 모델 개념도

출처: 은평시민신문 기사(2013: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 하자구요!)

-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배치 및 운영
 - 2013년 축제를 위해 ‘은평누리축제 포스터공모’, ‘공동체예술작품 아이디어 공모’, ‘축제기획자양성과정’, ‘누리축제추진위원 위촉’ 등을 진행했고, 주민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10월12일 ‘응암로 차없는 거리’에서 축제의 부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함
 - 은평지역내 특정 생활예술동아리 축제의 틀에서 벗어나 청소년, 성인, 강좌 수강생, 전문예술인, 공동체 전시회, 영화제, 주민참여예산총회등 전문예술인, 일반시민, 청소년과 성인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장을 형성
 -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재능있는 지역주민이 교실을 열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네트워크활동을 지원하는 ‘숨은고수교실⁵¹⁾도 팔목할 만한 지점임
 - 이를 통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주민간 소통을 높여나가는 일종의 생활밀착형 Bottom-up 프로그램임

47) 은평시민신문 http://www.epnews.net/sub_read.html?uid=10958

48) 상동

49) 축제집행위원회 위원은 2011년 14명, 2012년 41명, 2013명 60명으로 확대

50) 은평 시민의신문,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자구요! - 박인배”

http://www.epnews.net/sub_read.html?uid=11033§ion=section4§ion2=

51) 은평구평생학습관 ‘숨은고수교실’ http://edu.eunpyeong.go.kr/sub4/sub4_2_1.asp

③ 평가 및 시사점

- 2012 은평누리축제⁵²⁾의 경우 축제 관람인원은 총 4만3천여명, 소요예산은 2억5천만원이 집행되었고, 축제참여인원은 1,63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됨
- 은평경제신문이 진행한 2012년도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매우만족:30.1%, 만족:49.3%, 보통:19.6%,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각각 5%로 집계됨⁵³⁾
- 그러나 축제의 성과가 참여자 숫자 및 설문조사에 의지되는 상황은 결국 양적 팽창이 주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높게됨. 이는 축제의 내실을 따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축제는 지역주민의 인식과 관심 그리고 자발적 참여가 주요한 요소로서, 축제의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상호간 신뢰와 소통이 중요함
- 따라서 소통구조를 구조화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구조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부분으로, 축제의 장기적인 비전과 단계별 목표수립이 공유되고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 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지난 축제와 현재를 비교해보고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 역시 고민되어야 할 부분임
- 은평누리축제의 경우, 지역주민의 참여과 소통구조, 지자체의 지원, 문화예술기관의 협조, 단시간 성과보다는 장기적 안목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예술축제가 가져야 할 기본 골격⁵⁴⁾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급격한 예산의 축소, 기관간 내실있는 의사결정 구조의 미비 등은 생활예술축제가 장기적 안목에서 안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축제를 전담할 전문기구가 없는 상황은 주민의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짐
- 또한 시민주도 문화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생활예술클럽들이 축제를 위해 스스로 소통구조를 확립하고 자발적 참여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지점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 나아가 생활문화예술 활동 모임의 실태 및 욕구조사도 면밀하게 조사되어 축제의 바탕이 되어야 함
- 시민주도 문화정책의 핵심은 시민의 능동성과 자발성임. 따라서 이를 견인할 제도적 장치가 바탕이 되어 운영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52) 2013년 축제의 경우 2013.10월 20일 현재 평가진행 중

53) 은평경제신문 <http://goo.gl/KUaerV>

54) 은평시민신문 “은평구청에서 주도하던 축제 기획에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민관거버넌스가 형성되었고, 나 같은 축제나 예술전문가들은 축제 운영 전담과 예술행사의 노하우를 약간 보태었을 뿐임. 이와 같이 민관거버넌스에 문화예술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문화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협치의 틀을 이루었고, 당연히 은평누리축제는 서울시 자치구 중 몇 안되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 손꼽히게 되었음” http://www.epnews.net/sub_read.html?uid=10958

(2) 성미산 마을축제

① 생활예술축제의 성격 강화

- 2001년부터 시작한 성미산마을축제는 2013년 12회째를 맞음⁵⁵⁾
- 도심 속 대안공동체의 평범한 축제였던 마을축제는 2007년에 이르러 ‘문화의 소비자로 만족했던 주민이 공연을 준비하는 문화생산자가 되어 생활문화판을 벌이는 축제’로 발전함
- 즉, 이때부터 마을공동체에 속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감수성과 욕구를 예술행위로 본격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함께 나누는 형태의 생활예술축제의 성격을 갖기 시작함
- 마을구성원들이 직접 ‘문화 생산자’가 되어 축제를 즐겨보자는 의도에서 설정된 2007년도의 축제취지는 이후 성미산마을축제의 기본방향을 결정짓는 초석이 됨
- 즉, 구성원들이 스스로 축제의 연회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으로, 2007년도 이후 축제의 취지에 ‘동아리 ‘가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때부터 성미산마을축제는 생활예술축제의 성격을 본격적으로 띠게 됨
- 특히, 2007년도 축제의 취지가 생활예술활동의 표현과 공감의 장을 알리는 선언적 표현이라면 2008년도에는 ‘주민문화예술동아리가 발전하는 축제’로, 2010년도에는 ‘동아리 활동이 꽃피는 마을축제’로, 2011년도에는 ‘문화예술 동아리 발표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면 뚜렷이 알 수 있음

② 주요 배경

- 2007년도 마을축제에서 생활예술활동에 대한 선언적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공동육아에서 시작한 부모들이 대안학교를 거치면서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웠다고 생각하게 된 때가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그 순간, 그간 참고 있었던 부모들의 자기표현욕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둘씩 관심사에 따라 문화예술동아리가 만들어지더니, 어느덧 마을축제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⁵⁶⁾

- 이러한 현상의 구체적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들 수 있음
- 구성원들의 오랜 욕구
- 관심과 공감을 확인하는 마을공동체의 의사소통구조
- 마을활동가 경험을 통한 징후 포착과 문화예술기획자의 탄생

55) 매년 개최했다면 13회째가 맞지만 2009년도 축제가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취소되었음

56) 2009년도 어느 날, 성미산마을극단 무말랭이 뒷풀이 중 성미산마을극장 대표 유창복의 회고

③ 마을활동가로부터 문화예술기획자의 탄생

- 위 세 가지 요소 중 특히 마을활동가에서 문화기획자가 탄생했다는 점이 중요함
- 마을구성원들의 욕구와 관심사를 축제에 반영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기획자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등장하게 됐다는 점은 매우 큰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이들은 마을공동체 형성과정에서 활동가의 역할을 수행했던 인원들로, 마을살이의 사소통 과정의 핵심 매개역할을 해오는 과정에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와 관심사를 읽어냈고, 이를 적극적으로 축제 기획에 적극 반영했음.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동아리를 조직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제안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축제가 매년 주제는 조금씩 다르더라도 방향성이 마을의 문화와 예술의 한마당이 열리는 특별한 며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함 ● 성인문화예술동아리를 활성화하여 ‘개인’이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모이면 다른 조합과 가족단위로 묶이는 관습을 자연스럽게 뛰어넘을 것임 ● 부모들의 즐거운 동아리 활동은 아이들에게 교육하지 않는 교육이 될 것이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원동력이 될 것임⁵⁷⁾
--

④ 두 달 프로젝트와 예술동아리의 탄생

-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7년에는 축제 준비과정에서 이른바 ‘두 달 작전’이라는 프로젝트가 수행됨
-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간직해왔던 마을구성원들끼리 자발적으로 두 달의 연습 기간을 거친 뒤, 축제 당일 직접 무대에서 공연을 펼침
- 두 달 작전의 결과, 성미산마을에는 축제를 위한 한시적 문화예술모임이 아닌 일상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상시적 문화예술동아리가 생겨남
- 아래 표는 축제를 통한 생활예술동아리의 발아와 성장과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8> 성미산마을축제와 동아리들 성장 양상

구분	2001~2006	2007	2008	2009~2010	2011~현재
발전 양상	씨앗	새싹	나무	꽃	열매

- 이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동아리들을 살펴보면 뚜렷이 알 수 있음
- 동아리 활동 양상과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자발성: 마을 내 관계망을 통한 욕구 공유와 자발적 결성
- 개방성: 참여와 활동 여부에 있어 개인의 상황에 따른 자의성, 구성원들의 중복과 이를 통한 동아리 활동 경험 공유, 구성원들의 인적 관계망을 통한 지역으로의 확산
- 활동성: 자체 및 마을 내 주요 문화예술프로그램-축제, 극장 프로그램 참여, 자체 생산 및 소비
- 관계성: 지역 내 문화, 교육, 복지 관계망과의 자발적 결합. 다양한 예술가들과의 자발적 결합

<표 9> 성미산마을 문화예술동아리 현황

구분	동아리	결성 시기	비고
음악 동아리	아마밴드	2007	풍물, 합창, 악기, 노래, 밴드
	성미산풍물패	2007	
	창작오페라 세.노채	2009	
	해금동아리	2010	
	성미산노래패 진동	2011	
	밴드 7013B	2011	
	성미산학교 중등밴드 소수자	2011	
	해금동아리	2011	
	우쿨렐레	2012	
	망원역 3번 출구	2012	
시각예술 동아리	기타씨클 야간비행	2012	사진, 영상, 미술
	듀오 도깨비와 평박	2012	
	동네사진관	2007	
연극동아리	영상동아리 물.뜨.네	2007	활동 중지 중
	드로잉 모임	2007	
	성미산마을극단 무말랭이	2008	
춤	성미산 유스씨어터	2009	활동 중지 중
	어르신연극반	2009	
	성미산탐댄스	2009	
도서, 인문학	주부댄스동아리 Cactus	2012	여성인문학
	맘품앗이	2008	
기타	릴라 healing&art	2011	문화예술강좌, 기획 자체 공연 등

57) “함께하는 우리 마을 - 마을축제 워크숍 자료집”, 2006. 송지선의 2012자료에서 재인용함

- ⑤ 성미산문화예술동아리축제⁵⁸⁾
 - 성미산동아리축제의 배경과 형성 과정
 - 마을 문화예술동아리의 자립기반 형성
 - 2007년 축제를 중심으로 결성된 동아리들은 (사)사람과 마을의 지원(문화분팀)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감
 - 그러던 중 동아리 활동의 자발성과 열린 구조를 위해서는 자체 자립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2009년부터 반장(동아리대표자)모임을 통해 고민을 공유해 나간 결과, 아래와 같은 순서와 양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갔음⁵⁹⁾
 - 반장(동아리대표자)모임을 통한 활동과정 소통
 - (사)사람과 마을의 기획자(문화분과 팀장)의 결합을 통한 공동기금 마련
 - 동아리 자발성과 열린 구조 유지를 위해 기획자에 의한 전채기금 마련 지양
 - 자부담 및 동아리 개별 기금신청을 통한 개별 동아리 자체재원마련방안 모색
 - 각 동아리별 독자적 기획에 의한 강의 준비와 이를 통한 신입회원 모집
 - 각 동아리별 자체 프로그램을 통한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 접촉 활동 지속
 - 마을 문화예술활동가의 고민과 역할⁶⁰⁾
 - 이 과정에서도 앞서 언급한 마을 문화예술활동가의 역할 이 중요하게 작용함
 - 이때 가장 중요한 고민은 역시 동아리의 자생력이었음. 그 고민은 다음과 같음
 - 동아리들이 스스로 자기 자리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음
 - 동아리들이 각자의 동력으로 새로운 활동들을 재생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동아리들이 서로 연합해서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음
 - 이를 위해 활동가들이 실행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예술활동을 통해 ‘빛나는 순간’ 까지 기다려주기
 - 동아리구성원들의 활동 동기를 유지시켜주는 것과 활동의 노력을 지켜봐주기
 - 기획성 사업 혹은 전체 기획안 지양 : 활동가가 기획자로 전면에 작용하는 순간, 동아리의 자발성은 물론 자생력까지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함
 - 자생력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체기획서, 기금지원서 제안을 목표로 함
 - 동아리가 자체적으로 기획서를 쓰거나 기금지원서를 쓴다는 건 본인들의 활동에 대해 체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판단함.
 - 동아리들 사이의 품앗이를 통한 호혜적 활동

58) 이는 프로그램북이나 전단지 등에 명시된 공식명칭임. 본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관습상 성미산동아리축제로 지칭하기로 함. 한편 연구의 내용은 주로 동아리축제의 전단지와 기록물, 그리고 사람과 마을, 성미산마을극장, 성미산동아리축제 참가동아리 카페 등에 실린 내용들과 인터뷰(뽀뽀, 2012. 10) 내용, 그리고 연구자의 경험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했음을 밝힘.

59) 뽀뽀, 우리동네 예술동네 수기공모 선정작 <예술과 마을에서 놀다> 서술 마포구 성미산사람들 이야기>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함

60) 이 부분은 마을문화예술활동가 뽀뽀와의 인터뷰(2013. 10.29)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함

- 동아리들의 연합프로그램의 진행가능성과 욕구 확인
 - 이렇게 자체 자립기반 형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연합프로그램의 진행가능성과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음
 - 때마침 마을극장이 만들어지면서 연합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성화되었고, 2009년 10월 제1회 성미산문화예술축제를 열게 됨
- 동아리축제 준비과정
 - 동아리축제의 일반적인 준비과정은 주로 반장모임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주요 안건들은 다음과 같음
 - 일정: 축제기간을 정하고 역산해서 준비일정과 공간운영 등을 계획
 - 홍보: 홍보문안, 홍보물 제작 등
 - 지원: 동아리별 상황에 따라 강사, 장비 등에 대한 공동기금 지원방안
 - 재정: 자부담을 중심으로 입장료 여부 등
 - 연대: 동아리 상호간 지원 방안
- 동아리축제 형성 과정
 - 성미산 동아리 축제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음
 - 특히, 활동주체와 재원마련 등에 있어 자립기반이 강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음

<표 10> 성미산동아리축제 형성과정

구분	활동 기반	활동 주체	주요 활동	비고	
동아리 인태기	2006	마을활동가 성미산마을축제 사람과 마을	마을활동가 마을주민	주민 워크숍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기금 지원
	2007			주민 워크숍 마을축제 참가	
	2008			주민 강좌 소모임 활동 마을축제 참가 동아리워크숍 개최	
동아리 성숙기	2009	동아리축제 성미산마을축제 사람과 마을 마을극장	마을활동가 동아리 반장모임 각 동아리	동아리축제 개최 마을축제 참가 자체 정기공연	자부담
	2010				
	2011				
	2012				
	2013	동아리축제 성미산마을축제 마을극장	동아리 반장모임 각 동아리		

- 동아리축제 성과
 - 축제 참가의 자의성
 - 동아리 활동의 지속성
 - 프로그램 진행의 독자성과 그에 따른 공간의 다변화

- 공동프로그램 진행의 자발성
- 신생동아리의 자연스런 등장
- 마을 배움터 소모임들에 문호 개방
- 이를 통한 신생동아리 결성의 가능성 확인
- 동아리축제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축제를 통해 함께 하는 공감의 분위기 마련
- 동아리활동의 동기 부여와 자극
- 주기적 반복을 통한 활동의 탄력성
- 새로운 관계망 형성의 계기
- 지역사회공헌에 대한 욕구 확인과 실천⁶¹⁾
- 신생동아리들의 잉태의 장
- 성미산마을 문화예술동아리축제 ‘아리아리 동동’ 연도별 활동

<표 11> 성미산마을 문화예술동아리축제 ‘아리아리 동동’ 연도별 활동

구분	부제	참여동아리	공연명/내용	공간
2008		마을 문화예술동아리들의 연대활동에 대한 모색기		
2009 1회	골목길 에서 마주친 사람들	동네사진관	인물사진전	마을극장 길가장처 카페 작은나무 성미산학교
		드로잉 모임	어르신 사진찍어드리기	
		마을극단 무말랭이	축흥극 ‘무말랭이 연습 구경와!’	
		마을어린이합창단	노래로 크는 나무 1	
		성미산풍물패+살판	풍물판굿	
		아마밴드	니가 진짜 원하는게 뭐야?	
		여성인문학 맘품앗이	앵콜 맘품앗이	
		영상동아리 물.뜨.네	명작 다큐멘터리 상영회	
		창작오페라 세.노.채	제작영상 발표회	
		(세상을노래로채우기)	공명실로폰 오케스트라	
2010 2회	예 술,	공간 민들레	시와 당신의 이야기 2	마을극장 카페 작은나무 살롱 드 마랑
		동네사진관	사진영상 ‘MEMORY’	
		드로잉 모임	‘드로잉, 발견’ 두번째	
		마을극단 무말랭이	희곡낭독회 ‘로미오와 줄리엣’	
마을어린이합창단	노래로 크는 나무 2			
성미산풍물패	어르신을 위한 풍물공연			

61) 지역사회와의 만남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주로 강좌수강료 할인, 참가비 면제/할인, 초청공연 및 공동워크숍 개최 등의 형태로 진행됨. 구체적으로는 어르신 초청공연, 독거노인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다문화가정 자녀들과의 공동워크숍과 공연, 이주여성들과의 워크숍 등이 있음. 이런 활동은 동아리별 특성과 상황에 따라 비주기적이며 자발적으로 진행됨

2011 3회	마 을 에 서 놀 다		‘우리동네 좋을씨고’	마을극장 카페 작은나무 한강시민 공원
		아마밴드	스탠딩 콘서트 ‘네티어를 풀어라’	
		창작오페라 세.노.채	창작오페라 ‘바람산 이야기’	
		성미산학교&해금동아리	‘시가흐르는 밤’& ‘In Story’	
		기획 프로그램	아리아리동동 오픈닝 파티	
			‘잠깐 쉬고 토요일밤을~’ 원데이 프로그램	
		동네사진관	사진영상 ‘MEMORY 2’	
		마을극단 무말랭이	무말랭이의 정가수업 ‘오픈 클래스’	
		마을어린이합창단	노래로 자라는 아이들	
		드로잉 목화열애	‘그렇고 그런’	
		성미산노래패 진동	‘소박한 기쁨’	
		성미산배움터	‘드림 업’	
		뮤지컬 교실	‘우리는 파티시에’	
		성미산배움터	‘가야금과 민요의 만남’	
		가야금 소리반		
		성미산풍물패	‘가을 소풍’	
		아마밴드	‘Believe...’	
		어르신 민요만담 프로젝트	‘민요따라 이야기 삼천리’	
		영상동아리 물.뜨.네	‘물뜨네 정기상영’	
		창작오페라 세.노.채	‘피리부는 사람’	
동네사진관	‘포토 스토리’			
2012 4회	마 을 에 서	마을극단 무말랭이	박금술의 ‘춤작 워크숍’	마을극장
		마을어린이합창단	‘노래로 자라는 아이들’ 4	
		릴라healing&art	악기씨클의 날 ‘씨클’	
		성미산노래패 진동	‘산다는 건’	
		성미산풍물패	개막 길놀이	
		아마밴드	‘세상만사’	
		우리마을 꿈터	‘택견 한마당’	
		7013B	‘청춘 집합소’	
			공동창작극	
			‘소주 한 병, 사랑 열병’	
2013 5회	아 리 아 리 동 동 쑈쑈쑈	마을극단 무말랭이	‘노래로 자라는 아이들’	마을극장 카페 작은나무 성미산학교
		마을어린이 합창단	작은 기타공연 ‘월화작당’	
		릴라healing&art	포토스토리 네 번째 이야기	
		동네사진관	‘택견 한마당’	
		꿈터	‘뚝뚝뚝 걸어가는 길에’	
		성미산노래패 진동	‘BURN’	
		아마밴드	‘A or B 당신의 선택?’	
7013B				

○ 동아리축제의 과제와 전망

- 2013년 현재 동아리축제는 축제를 시작할 때부터 안고 있었던 장기적인 과제는 물론, 이전까지의 축제와 비교해볼 때, 인적, 물적 기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인한 고민이 더해져 있는 상황임

· 즉, 마을 문화예술활동가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축제를 준비한다는 점과, 2012년

이후 마을극장이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하면서 생긴 운영의 공백 등이 새롭게 풀어야 할 과제임

- 이를 정리해보면 우선 장기적인 과제로는
 - 동아리 관계망의 범위의 한계: 홍보와 관객동원력
 - 동아리 상호간 관람의 어려움: 공유와 연대
- 새로운 과제로는
 - 마을 문화예술활동가의 부재: 자체기획력만으로 치러야함⁶²⁾
 - 마을극장의 공백: 홍보, 운영, 장비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결핍
 - 복합적 요인의 결과: 새로운 동아리 결성의 힘이 부족함, 활동의 활력과 확장,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위한 제언 마련
- 이에 대해 동아리 결성과 축제준비의 주요매개자로 활동했던 마을 문화예술활동가는 지금의 상황을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함
- 지속적인 시스템 만들기예 대한 고민이 필요함. 그래서 평가에서 공유하는 것, 정기적 모임이 중요하다⁶³⁾고 말함
- 이상에서 살펴본 바, 성미산동아리축제는 마을공동체와 마을축제의 형성,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예술적 욕구와 동아리 결성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축제임
- 여기에 주민들의 욕구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었던 마을 문화예술활동가들의 역할 등이 결합하여 오랜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화학작용해나가면서 만들어진 유기적 결과물임
- 그 과정에서 얻은 성과들은 또 다른 도전과 시도의 밑거름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과제들을 풀어 나가야할 시점임

(3) 시사점

-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은평누리축제 사례	성미산마을 사례
축제의 정체성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의 반영	
축제의 주체	참가주민들이 축제 준비와 운영의 주체로 활동: 축제추진위원회(상대적 자율성 낮음 / 축제집행위원회(자율적 전담기구로 활동)	

62) 이 부분에 대해 활동가 당사자는 “동아리를 하려면 뽀뽀한테 가봐라 라는 말이 마을에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동아리 축제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음. 왜냐면 축제에 대한 자생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함. 마을문화예술활동가 뽀뽀와의 인터뷰(2013. 10.29) 중

63) 상동

축제의 내용	생활문화예술축제	
축제의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문화예술동아리 활동,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를 위한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예술활동 장려, 연대를 위한 노력 등 ● 행정기관의 참여 / 주민자치기구 중심 	
축제의 기획과 운영	민관 거버넌스	마을공동체 자치기구 중심
축제의 범위	자치구 지역 전체	마을 중심+지역사회 결합
축제의 규모	상대적 대규모	상대적 소규모
재정 운영	자치구 본 예산	자부담+지원금(서울문화재단)
축제의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활동 반영 - 재정적 기반의 상대적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관계망에 밀착한 의사소통구조와 이를 통한 욕구와 관심사의 공유 - 높은 자발성과 주체성 - 이를 통한 높은 연대의 질과 만족도 - 마을공동체를 통한 ‘활동가’ 경험과 ‘문화예술활동가’로의 성장: 매개자, 조율자, 관찰자, 예술강사로서의 문화예술활동가 - 문화예술활동가의 활동: 축제, 동아리, 마을극장 등을 통한 마을문화예술생태계 조성 - 주민자치운영의 마을극장 경험: 문화예술활동의 거점 공간, 매개와 교류의 공간, 동아리와 문화예술활동가의 성장 공간 - 성과축적을 통한 주민주도형 생활예술축제의 자발적 개최: 동아리축제, 동네연극축제
축제의 보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의사소통구조의 구조화 - 자발적 욕구와 공감대 형성의 측정 척도 제시 - 축제전담기구의 자율성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의 공감과 연대: 마을공동체의 가치와 이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폭에 대한 지속적 노력 - 축제 전담기구의 상실화 및 이를 통한 성과의 축적 - 마을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가의 안정적인 활동 근거 마련 - 이상의 활동들을 위한 재정 방안 마련

2) 해외 사례

(1) 국민문화제

- 일본 내 최대의 문화축제로 일컬어지는 국민문화제는 1986년 도쿄에서 첫 출발을 시작으로 매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개최되는 축제로, 일본 전 지역에 다양한 문

화활동을 전파하고자 시행되고 있음⁶⁴⁾

- 일본 국민문화제는 ‘현’ 단위에서 중심된 기획을 하고 그 아래 단위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색이 맞춘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함⁶⁵⁾.
- 일본 국민문화제의 개최취지는 “전국의 문화예술 관계자와 일반 국민이 평소의 성과를 전국적인 규모로 발표하고 교류함으로써 문화활동 의욕을 드높이고, 새로운 문화예술 창조를 촉진하며, 지방문화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함
 - 이에 따라 국민문화제는 최근 10여년간 지방문화육성과 국제화라는 두 개의 화두를 담아 일본 내의 문화단체를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과 학술행사 등을 초대하면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음⁶⁶⁾
- 2002년 제17회 일본 국민문화제 사례
 - 종합페스티벌 4개, 문예 음악 미술 영상 생활문화 등 34개 중점사업(총200여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민문화제 예산은 총170억원으로, 문화청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였음
 - 문화제 행사는 일회적인 축제가 아니라 전통미를 살린 문화제와 지역마다 전래하는 개성 있는 마을축제(마쓰리)가 어우러져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문화’를 구성하고자 하였음⁶⁷⁾
- 2009년 일본 시즈오카현 국민문화제 사례
 - ‘시즈오카현 문화진흥 조례’를 바탕으로 ‘시즈오카현 문화진흥 계획’을 책정(2008년)하고, “보고, 만들고, 떠받치는” 사람을 육성하여 감성이 풍부한 지역사회를 형성함을 기본목표로 설정⁶⁸⁾하면서 문화진흥 목표와 추진 시책을 정했음
 - 이 기본목표의 모든 공통 주체는 지역주민으로 설정되어 운영됨

(2) 마쓰리 축제

- 규모가 큰 국민문화제뿐 아니라 일본 내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축제(마쓰리)가 연중 이어짐
- 그 중 지역성을 살리면서 심도 있는 ‘도시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면서 진행되는 축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⁶⁹⁾

64)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http://en.wikipedia.org/wiki/National_Cultural_Festival

65)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예술지원 정책방안연구> 중 “교토대학 교수 요네야마 도나시오는 ‘국민보다 시민, 정민, 촌민, 부, 현 민이라는 말을 써서 지방문화의 단위를 중시하여 중점적인 문화투자를 해야하고 전통적인 문화제뿐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생활문화예술과 지역성을 언급하였음

66) <일본의 국민문화제>. 백원근, 아르코, 2001

67) 상계서

68) <생활예술지원 정책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69) <문화도시 공공디자인>, 안진근,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2011

<표 12> 일본 문화도시 사례 및 진행중인 축제

일본 지역명	내용 및 특징	축제명
구마모토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아트폴리스계획’을 통해 문화도시로의 전환점을 수립 ▪ 구마모토의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는 설계와 발주, 건축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 	축제: -구마모토성의 계절 축제 -아소산 일대의 불축제 -고분축제 -연날리기 대회 -아마카도로로 마쓰리 -모겐 마쓰리 축제
도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부터 시행된 도시계획의 목표는 ‘세계를 리드하는 매력있고 풍성한 국제도시 도쿄창조’ 	축제 : -간지쓰 축제, 세쓰분축제 -하나미 축제 -간다 마쓰리 축제 -산자 마쓰리 축제 -아시아사 삼바 카니발 -도쿄국제영화제
요코하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코하마는 2004 ‘문화예술도시-Creative City’ 형성을 위한 제언, ‘2006 National Art Park plan’ 및 ‘문화예술창조도시 마스터플랜’을 통해 매력있는 지역자원을 활용,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만들기 진행 중 	축제 : -바다의 날 불꽃축제 -개항제, 하나미 축제 -중화가 축제

○ 축제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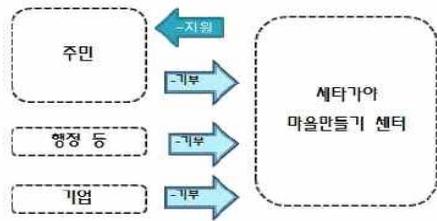
- 첫째, 지역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축제 운영
 - 일본 우쿠이현 아마다테군에 있는 아마다테 예술관에서는 ‘마을의 건물이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맡기는 시스템’으로 실현하자는 의도하에 ‘주민주체의 기획경영’과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두 개의 테마로 극장 운영 및 프로그램이 운영됨⁷⁰⁾
 - 아마다테 예술관은 지역주민이 구현하고 싶은 행사(콘서트, 연극, 심포지엄 등)을 생각해내고, 주민이 기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검토이후 기획제안자가 프로듀서가 되고 이어 실행위원회가 형성됨⁷¹⁾
 - 이는 주체가 주민, 마을, 지역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를 중심으로 발상을 도모하자는 취지임
 - 이는 축제(내지는 행사)를 통해서 형성되고 축적된 구조(네트워크)가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임⁷²⁾

70) <살아 쉬쉬는 극장>, 에이 기세이/모토스키 쇼죠, 연극과 극장, 2008

71) 상계서

72) <생활예술지원 정책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일회적 성격의 축제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임
- 일본 요사코이 마츠리에서도 주민주체가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임
- 매년 8월9일부터 12일까지 4일동안에 걸쳐 벌어지는 축제 ‘요사코이 마츠리’는 일본 시코쿠(四國)에 위치한 고치(高知)시에서 매년 벌어지는 지역주민이 중심되어 참여하는 축제로 ‘거리는 무대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됨
- 이 축제를 운영하는 조직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7명의 직원이 상근하고 있으며, 경연방식의 거리 춤축제를 경연과 퍼레이드 방식을 혼용하여 25개소의 장소에서 펼치는 축제를 기획함⁷³⁾
- 둘째, 이끄는 정책에서 지원하는 정책 민관거버넌스 운영
 - 공동체는 대단히 신축적인 개념으로 통상적으로는 공통의 연대의식과 상호작용을 통한 호혜적 관계로 구성된 조직체임
 - 특히 지역문화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는 지역문제를 핵심으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이 이어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권리이자 책임임
 - 일본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주민보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임
 - 행정기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만들기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사회서비스 및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NPO법 제정등으로 시민단체등이 비약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함⁷⁴⁾
 - 이를 세타가야구 마치즈쿠리 운동의 지원모델을 살펴보면 <그림3>와 같이 살펴볼 수 있음⁷⁵⁾



<그림 3>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펀드운영의 예

- 셋째, 지역을 소재로한 축제와 문화공동체 운영

73) 권순석, 예술경영아카데미, 지역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4~6p 요약정리 “2002년 11회 대회에는 344팀 44,000명이 참가하였고 관객은 151만명을 기록했다. 2003년도에는 330개 팀에 4만 4천명 이상이 축제에 참가하였으며, 관객은 약 200만명으로 추산됨. 각 팀당 40~1509명 출연하였고, 특정 구호와 40~150명의 단체참여 원칙, 퍼레이드 및 경연시간 운영원칙 등 간단한 규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74) <문화장조공동체 활성화 연구방안>, 대구경북연구원, 2012

75) 상계서

- 이바라키현 히타치시(茨城縣日立市)은 있어서의 행정과 지역주민의 협동에 의한 지역 문화의 창출한 사례로 보고⁷⁶⁾되고 있음
- 히타치시에서는 1990년에 종합 문화 시설인 히타치 시빅센터가 건설된 것을 계기로 시민오페라(클립)가 탄생되었고, 이어 오페라간담회 개최하여 주민의 육구와 참여수요를 파악함
- 또한 ‘전국 오페라 포럼’ 을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해 지방의 오페라 단체의 교류와 정보교환의 장소로서 외부로부터 배울 기회를 마련하고 있음
- 히타치시민의 오페라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면서 단순한 문화 진흥에 머무르지 않고, 히타치 시빅센터의 건설이후 이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시민참여(문화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음
- 축제 평가 및 소결
 - 일본에서 지역을 거점화하여 진행되는 수 많은 축제의 특성은 문화예술의 좌표를 시민들 스스로가 주도하여 만든다는데 있음
 - 일본관급단체가 주최이지만 설계-공사-행사장 안내에 이르기 까지 자원봉사자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 이는 지방문화의 활성화와 재정립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⁷⁷⁾
 - 일본의 축제의 경우 지역공동체를 중시하면서 행정정책의 초점을 ‘마을만들기(마치즈쿠리)’ 정책과 병행하는 특성을 보임
 - 또한 이를 통해서 행정과 주민의 관계를 일방적 관계가 아닌 양방향소통관계로 진행하고 있음
 - 이는 단지 수동적인 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주민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임⁷⁸⁾
 - 지역민의 자발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지원중심의 행정으로 주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공동체의 창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⁷⁹⁾
 - 일본의 사례를 보면, 지역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삶의 의미부여를 이루어내면서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을 추구하고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
 - 많은 경우 양질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제가 외부와의 연계하고 확대를 촉진하며 지역주민들에 동기부여를 유발하는 사례도 많음⁸⁰⁾
 - 이는 마을만들기(마치즈쿠리)사업에서 기초 강좌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알아채지 못한 ‘가치’ 등을 인식시켜주는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을 지

76)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례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77) <일본의 국민문화제>, 백원근, 아르코, 2001

78) <일본 지역 공동체 경영을 위한 주민참여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자성, 경남발전연구원, 2010

79) <문화장조공동체 활성화 연구방안>, 대구경북연구원, 2012

80) 상계서

속적·포괄적으로 성장케 함으로써 창조적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데⁸¹⁾, 이는 일본 내 축제부문에서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대두되는 지점임

- 지역 문화의 진흥에 대한 주민의 참가 의식을 높여 지역의 ‘문화력’을 결집하는 사례로 일본 축제의 사례가 꼽히는 것은 지속적인 정책과 민관거버넌스 형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임
- 이를 통해 주민의 의식이나 요구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행정과 민간등과의 협력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주민의 의향을 꾸준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임⁸²⁾
- 시사점
 - 생활문화예술활동의 기반으로 ‘마을만들기’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 이는 생활관계망에 밀착한 의사소통구조와 이를 통한 욕구와 관심사의 공유와 반영, 그 결과로 자발성 및 주체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때문이라고 여겨짐
 - 주민이 직접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 이는 생활예술활동의 주요 매개자로서 문화예술활동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여겨짐
 - 축제조직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 민관거버넌스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의결기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여겨짐
 - 행정기관이 이끄는 것보다는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축제 설계의 초점이 주민들의 자발적 욕구에 근거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여겨짐
 - 이는 성남의 사랑방문화클럽활동 및 축제 활성화 계획의 중요한 시사점임

81) 상계서

82)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례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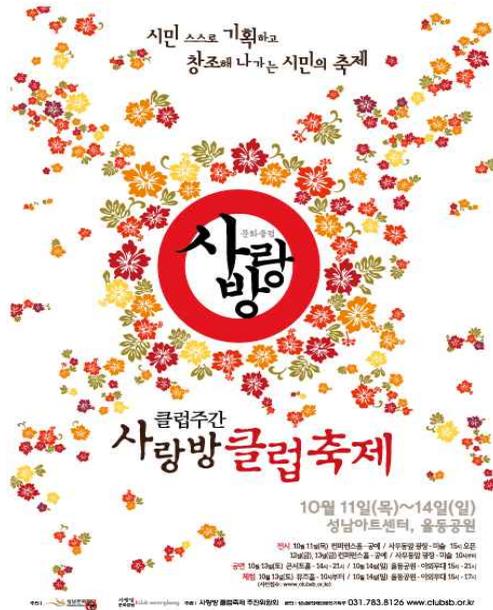
Ⅲ.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추진 과정 및 평가

1. 연도별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추진 과정(2007년~2013년)

1) 제1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2007년)

(1) 개요

- 행사명 :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
- 기 간 : 2007년 10월 11일(목) ~ 14일(일), 4일간
- 장 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컨퍼런스홀, 뮤즈홀, 사무동 앞, 율동공원



<그림 4>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 포스터(2007)

(2) 주요 일정

- 개막식
 - 전시 개막식
 - 일시 : 10월 11일(목) 오후 3시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앞 광장
 - 축제 개막식
 - 일시 : 10월 13일(토) 오후 7시 15분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3) 주요 프로그램

① 공연 분야

구분	10월 13일_콘서트홀	구분	10월 14일_율동공원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부> 14:00~15:40 고은이오, 민요사랑 사론클럽, 풍물굿패 두렁, 여섯줄 사랑, 자율학습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부> 15:30~17:00 분당포크댄스클럽 연합풍물 대동제: 서현풍물패, 터쫓풍물패, 야단법석, 풍물공동체네트워크, 민요사랑, 가족풍물패 신바람, 하늘연, 두둑, 소리누리, 풍물굿패 우리마당, 가족풍물패 산도깨비
2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부> 16:00~17:50 아마테이만돌린챔버, 로망스기타합주단, 경기교사리코더합주단, 분당만돌린오케스트라, 분당민트오케스트라, 스튜디오 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부> 19:00~21:00 여섯줄사랑, 블루그래스음악클럽, 분당 색소폰
3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부> 19:00~20:45 분당여성합창단 ★ 개막식: LAMO DANCE 클럽, 성남 목관앙상블, 산도깨비, 윈드매니아 스튜디오 창 	3부	

② 체험 분야

구분	10월 13일_뮤즈홀 (10:00~16:00)	10월 14일_율동공원 (15: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방공예 ☑냉장고자석 만들기 10:00~12:00 대상 : 유치부, 초등 저학년 30명 ★이야기아들자 ☑구연동화 14:00~15:00 유,초등 저학년 40명 ★밀알사랑 ☑아트북만들기 15:00~16:00 유,초등 저학년 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떡종이 인형 ☑호박만들기 대상 : 초등학생 30명 ★한지공예 ☑사각접시 만들기 초등학생 30명 ★산도깨비 ☑숫대, 장명루만들기 누구나

③ 전시 분야

구분	10월 11일 ~ 10월 13일			
컨퍼런스	분당퀵트, 한지공예, 닥종이인형, 한지마을, 규방공예, 늘푸른꽃누르미			
사무동 앞 광장	탐아츠누드크로키, 장애인 민화반 소망을 그리는 사람들, 수합회, 빛누리 성남분당다카동호회'좁은세상', 분당중앙수채화, 수목향기, 성남서예청년작가회			

(4) 참가자 현황

① 사랑방문화클럽 출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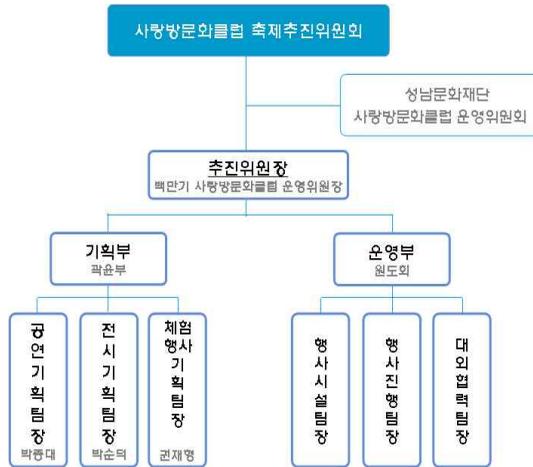
- 공연 : 총 38개클럽 / 710명 출연
- 전시 : 총 14개클럽 / 전체 154점 전시

② 관람객 현황

날짜	10월11일(목)	10월12일(금)	10월13일(토)	10월14일(일)
관람인원	1,150명	840명	1,500명	2,710명
총계	전체 6,200명			

(5)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클럽대표들로 구성



<그림 5> 사랑방클럽축제 운영조직도

-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 축제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상시 회의를 개최
- 내용 : 축제추진 방향, 역할분장 및 운영방안, 홍보 및 프로그램 활성화 논의

(6) 성과 및 개선점

- 성과
 - 아마추어 동호회의 재발견과 수준 높은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음
 - 전시장이 아닌 공간임에도 부스 및 전시대 설치로 공간이 잘 꾸며짐
 - 극장을 오고가며 부담없이 미술 작품을 접할 수 있었다는 시민들의 반응
- 개선점
 - 행사 성수기로 인한 유관기관의 협조 미흡
 - 클럽 관람의 지나친 의존으로 일반 관람객 부족
 - 좀 더 의의성을 가질 수 있는 시기로 일정 조정이 필요
 - 재단 측 인력보강으로 추진위원회와 재단의 역할 분담과, 관계 및 조직체계 정립 필요
 - 장기적인 동호회의 지원으로 다양한 레파토리 개발 및 장르별 유기적 결합으로 테마가 있는 공연 방향을 모색



<그림 6>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2007)

2) 제 2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2008년)

(1) 개요

- 행사명 : 제 4회 사랑방클럽축제
- 기 간 : 2008. 9. 23(화) ~ 9. 28(일), 6일간
- 장 소 : 성남아트센터, 남한산성, 율동공원

(2) 주요 일정 및 프로그램

구분	일시/장소	내용
개막 리셉션	9월23일(화) 19:00~119:30 양상블시어터로비	○ 심포지엄을 찾은 외부인사와 개막공연을 찾은 관람객에게 사랑 방문화클럽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축제개막에 따른 흥겨운 분위기조성
사랑방정책 심포지엄개최	9.23(화) 14:00 ~ 18:00 컨퍼런스홀	○ 내용: 사랑방문화클럽정책을 전국에 알리고, 성남을 문화도시로 한 단계 더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방안 모색 ○ 발제자 4인, 토론자 5인
개막식	9. 23(화) 19:30~21:00 성남아트센터 양상블시어터	○ 한지패션쇼: 빛.여.울.무.용.단.(43명) ○ 개.막.공.연. - 로.망.스.기.타.합.주.단(22명), 성.남.목.관.양.상.블(6명), 비.바.댄.스(2명), 우.리.마.당(8명), 색.소.폰.연.합.양.상.블(20명), .여.섯.줄.사.랑(1명), 해.동.문.인.협회(1명), 스.튜.디.오.창(4명).
어.르.신.을.위.한. '孝 잔치마당'	9. 24(수)14:00~16:00 성남아트센터 양상블시어터	○ 1부 공연 - 미맹만들린(28명),고은이오(11명), 성남아코디온동호회(3명), 탄천색소필(2명), 분당색소폰(6명) ○ 2부공연 - 성남판소리(7명), 민요사랑(5명), 비바댄스(2명), 여섯줄사랑(10명)
사랑방클럽데이 '사랑의하모니'	9. 25(목) 17:30~21:00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1부 공연 - 분당주니어필요케스트라(30명), 원음합창단(31명), 을지대학교합창단(75명), 분당여성합창단(25명), ○ 2부공연 - 아마데이만들린챔버(6명), 빛어울무용단(23명), 사론클럽(10명), 분당포크댄스(15명)
어린이를위한 '사랑의콘서트'	9. 26(금) 19:30~21:00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1부 공연 - 성남교사합창단(28명), 장애우공연단:'소리친구'(6명), 을지대치어단(11명),산도깨비(70명) ○ 2부공연 - 성남동초등학교리코더합주단(50명), 분당만들린오케스트라(45명) 카라어린이플루트오케스트라(20명),예듀플루트오케스트라(20명)
시민과함께하는 '사랑방의힘'	9. 27(토) 16:00~18:00 남한산성놀이마당	○ 1부 길놀이 - 우리마당(25명), 산도깨비(11명), 풍물굿패두령(3명), 민요사랑(9명), 사방사방각설이(12명), ○ 2부 공연

		- 풀잎소리(색소폰) (5명), 은행주공어린이밴드'블루스카이' (5명), 자율학습밴드(5명)																																			
폐막행사 '사랑의힘으로'	9.28(일) 14:00 ~ 18:00 울동공원야외공연장	○ 길놀이 - 터줏대감패, 아단법석풍물패, 우리마당, 신바람풍물패, 서헌풍물패(60명), 사방사방각설이(12명) ○ 전통혼례: 문화공헌지원프로젝트 - 우리마당(25명), 산도깨비(10명) ○ 폐막공연 - 자율학습밴드(5명), 분당옐클럽(9명), 신바람풍물패(13명), 은행주공어린이밴드'블루스카이' (5명), 서헌풍물패(20명) '수밴'밴드(7명), 이클립스밴드(4명) ○ 대동놀이																																			
전시	9.23(화2) ~ 28(일) 10:00 ~ 19:30 미술관본관과미술관야 특별전시장 및 사무동양	○ 25개 클럽, 318점 전시 - 수채화 : 분당중앙수채화, 수람회, 은빛샘수채화, 예다움, 그림을 배우자-그배(신규) - 유화 : 연우회, 다올회(신규), 새나희(신규), 분당아티스트(신규) 월산미술포럼(신규) - 수목화 : 수목향기, 대원목향회, 성남서예청년작가회, 소망을그리는사람들, 서각마을 - 크로키 : 성남누드크로키, 성남WS_art 누드크로키(신규클럽) - 사진과영상 : 줌인세상, 사진과사람, 성남6mm - 공예 : 한지공예, 한지마을, 수미회, 늘푸른꽃누리미, 신문지공예(신규)																																			
체험	9.24(화2) ~ 27(토) 10:00 ~ 19:00 -빛의계단, 뮤즈홀, 28(일) 울동공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날짜</th> <th>시간</th> <th>10:00 ~ 12:00</th> <th>14:00 ~ 16:00</th> <th>18:00 ~ 19:00</th> </tr> </thead> <tbody> <tr> <td>23(화)</td> <td>23(화)하</td> <td></td> <td></td> <td></td> </tr> <tr> <td>24(수)</td> <td>24(수)하</td> <td>• 기본, 바로, 최우명 사주기 • 수묵화(가무료)</td> <td>• 숲바람들가~수미회(1,000원)</td> <td>• 캠페인들?~수채화팀(무료)</td> </tr> <tr> <td>25(목)</td> <td>25(목)하</td> <td>• 숲바람들가~사각마을(3,000원)</td> <td>• 부채만들기~대원목향회(1,000원)</td> <td></td> </tr> <tr> <td>26(금)</td> <td>26(금)하</td> <td>• 부채만들기~대원목향회(1,000원)</td> <td>• 캠페인들가~수채화팀(무료)</td> <td></td> </tr> <tr> <td>27(토)</td> <td>27(토)하</td> <td>• 정리정서만들기~원지공예(5,000원) • 손거울만들기~한지마을(2,000원) • 쿠션통화~이화기미술서점(무료)</td> <td>• 유화그리기~연우회(5,000원)</td> <td></td> </tr> <tr> <td>28(일)</td> <td>28(일)하</td> <td></td> <td>• 호박만들기~수미회(1,000원) • 손거울만들기~원지마을(2,000원) • 부채만들기~대원목향회(1,000원) • 꽃만들기~사각마을(3,000원) • 불무문꽃누드~가무료(5,000원) • 어저씨만들기~신문지공예(3,000원) • 전방향일생사신 • 줄고세상(가무) • 사진:남한산성(가무)</td> <td></td> </tr> </tbody> </table>	날짜	시간	10:00 ~ 12:00	14:00 ~ 16:00	18:00 ~ 19:00	23(화)	23(화)하				24(수)	24(수)하	• 기본, 바로, 최우명 사주기 • 수묵화(가무료)	• 숲바람들가~수미회(1,000원)	• 캠페인들?~수채화팀(무료)	25(목)	25(목)하	• 숲바람들가~사각마을(3,000원)	• 부채만들기~대원목향회(1,000원)		26(금)	26(금)하	• 부채만들기~대원목향회(1,000원)	• 캠페인들가~수채화팀(무료)		27(토)	27(토)하	• 정리정서만들기~원지공예(5,000원) • 손거울만들기~한지마을(2,000원) • 쿠션통화~이화기미술서점(무료)	• 유화그리기~연우회(5,000원)		28(일)	28(일)하		• 호박만들기~수미회(1,000원) • 손거울만들기~원지마을(2,000원) • 부채만들기~대원목향회(1,000원) • 꽃만들기~사각마을(3,000원) • 불무문꽃누드~가무료(5,000원) • 어저씨만들기~신문지공예(3,000원) • 전방향일생사신 • 줄고세상(가무) • 사진:남한산성(가무)	
날짜	시간	10:00 ~ 12:00	14:00 ~ 16:00	18:00 ~ 19:00																																	
23(화)	23(화)하																																				
24(수)	24(수)하	• 기본, 바로, 최우명 사주기 • 수묵화(가무료)	• 숲바람들가~수미회(1,000원)	• 캠페인들?~수채화팀(무료)																																	
25(목)	25(목)하	• 숲바람들가~사각마을(3,000원)	• 부채만들기~대원목향회(1,000원)																																		
26(금)	26(금)하	• 부채만들기~대원목향회(1,000원)	• 캠페인들가~수채화팀(무료)																																		
27(토)	27(토)하	• 정리정서만들기~원지공예(5,000원) • 손거울만들기~한지마을(2,000원) • 쿠션통화~이화기미술서점(무료)	• 유화그리기~연우회(5,000원)																																		
28(일)	28(일)하		• 호박만들기~수미회(1,000원) • 손거울만들기~원지마을(2,000원) • 부채만들기~대원목향회(1,000원) • 꽃만들기~사각마을(3,000원) • 불무문꽃누드~가무료(5,000원) • 어저씨만들기~신문지공예(3,000원) • 전방향일생사신 • 줄고세상(가무) • 사진:남한산성(가무)																																		
특별전시	9.23(화2) ~ 28(일) 10:00 ~ 19:30 미술관본관특별전시장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추진과정 및 문화공헌활동 사진 전시																																			
부대행사	9.27(토)17:00 ~ 18:30 야탑역광장특설무대	○ 각 동 주민자치센터문화클럽을비롯한문화동호회합방, 조직																																			

마스터클래스 名人을만나다	9.27(토) 13:00 ~ 15:00, 16:00 ~ 18:00 2회: 컨퍼런스홀	○ 미술 - 강사 : 남궁원(경원대 미술과 교수, 성남예총 회장) - 내용 : 미술클럽 네트워크 활성화 및 기량향상을 도모하기 ○ 색소폰 - 강사 : 김원용(대한민국 뮤지션 협회 이사) - 내용 : 색소폰클럽 네트워크 활성화 및 기량향상을 도모하기
문화나눔 장터	9.23(화)~9.27(토) 10:00 ~ 18:00 사무동양	○ 사랑방문화클럽 제작 물품 판매 및 문화통화 거래

(3) 참가자 현황

- ① 사랑방문화클럽 출연진
 - 공연 : 총 46개클럽 / 897명 출연
 - 전시 : 총 24개클럽 / 318명 참가 / 318점 전시
 - 체험 : 총 8개클럽 / 56명
- ② 관람객 현황

날짜	9월23일(화)	9월24일(수)	9월25일(목)	9월26일(금)	9월27일(토)	9월28일(일)
관람인원	1,255명	978명	687명	1,274명	2,755명	3,150
총계	전체 10,099명					

(4)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클럽대표들로 구성

구분	인원	역할
위원장	1	
기획팀	8	전체 프로그램의 방향설정 및 기획, 평가를 조직하고 향후 페스티벌의 방향을 도출
연출팀	7	공연, 전시, 체험 각 분야별 PD제 도입 운영
홍보팀	6	신문, 방송, 온라인 등 다양한 홍보를 담당
운영팀	4	축제 실행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시스템운영 등의 실무를 지원
문화통화팀	4	문화장터 운영
대외협력팀	4	대외적으로 타 단체와의 협력을 조직
총계	34	

-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2008. 7. 26 ~ 7. 27. 강원도 횡성 둔내

- 참석자 :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기획팀원, 재단직원 등 16명
- 내용 : 축제추진 방향, 역할분장 및 운영방안, 홍보 및 프로그램 활성화 논의
- 축제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상시 회의를 개최

(5) 성과 및 개선점

- 성과
 - 다양하고 알찬프로그램으로 질적 향상을 이룸
 - 각 클럽이 함께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이해와 조직력 배양
 - 일자별로 대상을 선정하여 행사특성을 살리고 집객에 효과를 발휘함
 - 버스현수막 등 옥외광고와 매체홍보를 통해 사랑방문화클럽을 널리 알림
 - 대상을 특화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조직관객 유도
 - 어르신을 위한, 어린이 및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 주부대상의 프로그램 등
- 개선점
 - 축제 기간이 너무 길고 분산되어 있음
 - 축제를 비롯한 각 사업에 대한 홍보와 집객의 문제점
 - 상업적인 유명출연진이 없음으로 해서 대중인지도의 흡인력이 근본적으로 떨어짐
 - 가족중심이나 소외된 관객을 조직하는데 매달림
 - 축제기간 줄이고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 홍보와 집객 강화
 - 마을단위 사업 중심으로 찾아가는 축제 구현 : 우리동네 문화 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결합
 - 실내공연장이 아닌 야외공간에서
 - 단, 개막과 폐막은 전체가 모이는 형태로 진행



<그림 7> 제2회 사랑방클럽축제(2008)

3) 제 3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2009년)

- 2009년 사랑방문화클럽축제는 신종 플루 유행에 따라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와 재단 측이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취소를 결정함
- 9.6(일) 신종플루 전염병 위기 단계 ‘경계 2단계’로 격상 등 신종플루 확산에 우려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관련 지방자치단체 각종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과 사랑방운영위원회, 재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축제 취소를 결정함
- 신종플루의 확산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비록 축제 전체는 취소되었지만, 축제에 참여하려 했던 약 25개 클럽들 스스로 연합전 형태로 ‘사랑방클럽전’ 개최
- 사랑방클럽전
 - 일시 : 2009. 9. 15(화) ~ 9.20(일)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전시실
 - 참가팀 : 26개 클럽 320여점 전시
 - 오픈식 : 2009. 9.15(화) 18:00
 - * 세계문화클럽포럼 참가 해외내빈, 예총회장, 미협지부장 등 지역 인사, 사랑방문화클럽 회원 등 200여명 참가
 - * 찬조공연: 로망스기타합주단



<그림 8> 사랑방클럽전(2009)

4) 제 4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2010년)

(1) 개요

- 행사명 : 제 4회 사랑방클럽축제
- 기 간 : 2010. 9. 7(화) ~ 9. 12(일), 6일간
- 장 소 : 성남아트센터, 남한산성, 울동공원

(2) 주요 일정 및 프로그램

구분	일시/장소	내용
개막식	9. 7(화) 19:30 ~ 21:00 콘서트홀(104명)	· 개 막 식 · 사랑방오케스트라 특별 공연(101명)
시민오케스트라 페스티벌	9. 8(수) ~ 9. 10(금) 19:30 ~ 21:00 콘서트홀	8(수) - 성남희망오케스트라, W오케스트라, 파구소오케스트라 255명 (40명) (50명) (165명)
		9(목) - 너른꽃 오케스트라, 태원고 관악부, 풍생고 관악부 85명 (15명) (35명) (35명)
		10(금) - 젤로스 오케스트라, 민트오케스트라 92명 (45명) (47명)
성남사랑방 페스티벌	9. 8(수) ~ 9. 10(금) 19:30 ~ 21:00 앙상블시어터	8(수) - 젠틀브리즈(2팀) - (7명) 32명 - LH밴드(3팀) - (19명) - 스튜디오 창 - (6명)
		9(목) - 아침울타리/터울림풍물패 - (20명) 157명 - 레인보우합창단 - (80명) - MJ Brass 앙상블브 - (8명) - 미틴팬더기스 - (4명) - 로망스기타합주단 - (25명) - 씨밀레피아어 - (20명)
		10(금) - 분당색소폰클럽 - (19명) 40명 - 자율학습 - (5명) - 성남여고 사물놀이'난장' - (5명) - 게릴라군 댄스팀 - (5명) - 성남 정보고 밴드 - (6명)
사랑방문화클럽 展 & 문화통화 예술장터	9. 7(수) ~ 9. 12(일) 10:30 ~ 19:30 미술관 본관, 별관 및 빛의계단 (350명)	· 사랑방클럽회원 전시팀(350명) - 미술, 사진, 공예품 등 작품 350여점 전시 행사 · 예술장터 운영 - 비누, 공예품 등 작품 판매
'색소폰 1,000명 합주 도전 및 <대니정 & 김원용의 사랑의 콘서트>	9. 11(토) 13:00 ~ 19:30 콘서트홀 (530명:참가자포함)	· 색소폰 1,000명 합주도전 및 <대니정 갈라쇼 & 김원용의 사랑의콘서트> - 콘서트홀 - 13:00 - 16:30 : 색소폰 프린지 공연 - 17:00 - 18:00 : 대니정 갈라쇼 - 18:00 - 18:30 색소폰 1,000명 합주 도전 행사 - 19:00 - 20:30 김원용의 사랑의콘서트
사랑방클럽 야외공연	9. 11(토) 13:00 ~ 19:00 남한산성 (49명)	· 사랑방클럽회원 공연 - 아침울타리(20명), 고은소리(7명), 크리스벨리(4명), 민요사랑(5명) 스튜디오 창(6명), 젠틀브리즈(7명)
폐막식	9. 12(일) 13:00 ~ 19:00	· 폐막식

	<p>활동공원 (106명)</p> <p>- 연합풍물패, 우리마당, 모사모, 민오사랑 청실홍실, (50명) 분당색소폰 클럽(19명), 통기타 연합팀(15명), 율유직동호회(13명), 자율학습(5명), 사방사랑각설이(4명)</p>
--	--

(3) 참가자 현황

- ① 사랑방문화클럽 출연진
 - 공연 : 총 39개클럽 / 1,451명 출연
 - 전국 색소폰 97개 포함
 - 전시 : 총 21개클럽 / 350점 전시 / 236명 참여
- ② 관람객 : 5,788명

날짜	9월7일(화)	9월8일(수)	9월9일(목)	9월10일(금)	9월11일(토)	9월12일(일)
관람인원	964명	802명	1,072명	609명	891명	1,450
총계	전체 5,788명					

(4)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클럽대표들로 구성

구분	인원
위원장	1
기획실장	1
공연팀장	7
전시팀	7
홍보팀	1
운영팀	4
문화통화팀	3
사랑나눔팀	1
총계	25

-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2010. 7. 2 ~ 7. 3. 경기 양평리조트
 - 참석자 :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30명, 기획팀원, 재단직원
 - 내용 : 축제추진 방향, 역할분장 및 운영방안, 홍보 및 프로그램 활성화 논의

- 축제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상시 회의를 개최



<그림 9> 축제추진위원회 워크숍 및 상시회의(2010)

(5) 성과 및 개선점

- 성과
 - 대가를 만나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랑방문화클럽의 질적 발전의 계기를 창출하고, 동일 장르간 교류 확대 및 연합활동의 활성화
 - 공연클럽 연합팀인 사랑방오케스트라의 공연을 통해 클럽 회원 간 교류가 활발
 - 전시클럽 연합팀에 대한 구성 필요성 제기
 - 클럽네트워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의식을 높였음
 - 아동 소아암 환자 및 중증장애아동들을 위한 품앗이장터 수익금 및 참여 클럽 대상 모금액(10,438,670원)을 분당차병원에 전달



<그림 10> 제4회 사랑방클럽축제 품앗이 장터 및 모금액 전달식(2010)

- 개선점
 - 축제 프로그램 연구 및 축제 공간의 집중화, 시기 재조정 필요
 - 시민참여증대를 위한 참여 프로그램 개발

- 소속 클럽활동 외 타 클럽의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함



<그림 11> 제4회 사랑방클럽축제(2010)

5) 제 5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2011년)

(1) 개요

- 행사명 : 제5회 사랑방클럽축제
- 테마 : 탄천에서 길어올린 물고기
- 기간 : 2011. 8. 30(화) ~ 9. 4(일), 6일간
- 장소 : 성남아트센터

(2) 주요 일정 및 프로그램

구분	일시/장소	내용
개막식 '탄천에서 길어올린 물고기'	8. 30(화) 17:00~17:40 성남아트센터 빛의 광장	○ 전시유니트(전체 전시클럽)가 여는 축제 개막 - 공동작업의 성과로 작가작품과 사랑방회원들이 제작한 물고기 135개 설치 - 설치미술 '탄천의 물고기'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 ○ 사랑방문화클럽 축하 공연 - 출연진 : 모사오 打, 분당요들클럽, 푸른초장브라스밴드, 행위예술가(최아름)
사랑방클럽展	8.30(화) - 9.4(일) 10:30~19:30 미술관본관/사랑방특별 전시장	○ 사랑방문화클럽 전시팀 연합 전시회 - 전문가와 전시클럽의 공동작업 성과를 전시 - 액자를 벗고 평면미술의 입체 전시 시도 - 스스로 컨셉을 정하고 새로운 전시 방법 모색 - 문화공헌프로젝트의 성과인 청소년수련관 장애우 미술체험작품 전시
성남문화예술클럽	9. 3(토) 13:00~16:30	○ 공연한마당

한마당		1) 댄스마당(춤의 광장) - 이매1동 한국무용동아리 등 14개 클럽 참가 2) 통기타마당(큐브플라자 1층) - 고은소리, 기타홀릭, 마틴팬더김슨, 여섯줄사랑, 포엠송, 흰어울 3) 밴드/풍물마당 - 밴드 : 중앙초교 꿈지락밴드, 자율학습 등 9개 클럽 - 풍물 : 서현풍물패 등 6개 클럽 4) 색소폰마당(오페라하우스 앞 광장) - 늘푸른색소폰앙상블, 분당색소폰, 하모니색소폰, 해피색소폰 - 분당청소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을지대학교 레인보우합창단 ○ 전시체험마당 - 사랑방전시유니트, 분당'해'드로잉, 성남탄천문학회, 재미나는 시낭송, 분당환경시민모임, 성남문화 락&학, 성남자원봉사센터, 이오드림 등 8개 클럽 및 단체 참가
사랑방특별공연 "물 만난 물고기"	9. 3(토) 17:00 ~ 18:30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 공연구성 - 1팀 : 사랑방풍물패연합(*출연 : 3개 클럽 49명)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의 신명나는 환판! '세 동네 한마당' - 2팀 : 구미동 사랑방(*출연 : 5개 클럽 61명) · 각양각색의 두드림과 난타! '하늘소리 아리랑' - 3팀 : 휴먼앙상블(*출연 : 5개 클럽 52명) 라인댄스와 한국무용 그리고 '최진사댁 셋째딸' 대합창곡! - 4팀 : 문학과 역사의 하모니(*출연 : 3개 클럽 4명) · 시와 연극의 만남, '황진이 탄천에 오다!' - 5팀 : 드림팀(*출연 : 4개 클럽 80명) 만들린, 프룻, 클래식기타의 오케스트라가 펼치는 'Sound of Music' - 6팀 : 성남프라이밴드(*출연 : 3개 클럽 8명/특별출연 : 55사단 8명) 영화 아마켓돈, 싸이의 챔피언, 붉은노을을 함께 부르는 'Rock & 樂!' - 7팀 : 사랑방오케스트라+성남한마당(*출연 : 12개 클럽 65명) · 퓨전음악과 춤의 어우림 '달타령!' - 대동놀이 : 용선(龍船) 뱃놀이 및 강강술래
문화통화 예술장터	8. 30(화) - 9. 3(토) 14:30~19:30 i-Plaza 옆 광장	○ 사랑방 회원을 통한 판매물품 개발과 제작(에코백, 머리핀, 부채 등) 판매와 집객 효과를 위한 현장 체험부스 운영(부채 제작)
전문가와 만나다 1 "일상에서 미술을 발견하다"(박영택)	9. 2(금) 14:00 큐브플라자 미디어홀	○ 제목 : '일상에서 <미술>을 발견하다' ○ 내용 : 일상 속에서 작업의 소재를 발굴해내는 다양한 움직임들 통해 동시대 미술의 주된 경향을 고찰 : 관념적인 미술행위가 아니라 주변 삶에서 흥미로운 시각 이미지를 발견해내는 작업들을 감상

		: 공동작업에 관한 내용, '물고기'에 관한 도상적 의미설명 : 관련 이미지 감상과 비전문미술인의 작품 활동 감상
전문가와 만나다 2 "물 만난 물고기"(박인배)	<1회> 7. 27(수) 19:30 <2회> 9. 6(화) 19:30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	○ 장르결합형 작품구성방법과 대극장공연의 의의와 성과를 공유 ○ 공연 평가와 '사랑방클럽축제'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3) 참가자 현황

① 사랑방문화클럽 출연진

- 공연 : 총 75개클럽 / 1,106명 출연
- 전시 : 총 46개클럽 / 200점 전시 / 200명 참여
- ② 관람객 : 1,800명(9. 3. 오페라하우스 공연 기준)

(4)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클럽대표들로 구성

구분	인원
위원장	1
기획실장	1
공연팀	6
전시팀	7
홍보팀	4
운영팀	5
문화통화팀	4
대외협력팀	5
총계	33

-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2011. 6. 25 ~ 6. 26. 경기 양평 셀라리조트
- 참석자 :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기획팀원, 재단직원 등 59명
- 내용 : 축제추진 방향, 역할분장 및 운영방안, 홍보 및 프로그램 활성화 논의
- 축제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상시 회의를 개최

(5) 성과 및 개선점

○ 성과

- 행사일정 및 행사장의 집중으로 홍보, 집객 등 운영의 효율성
 - 평일 개막, 주말 대규모 행사로 프로그램과 모객 집중
 - 시민문화클럽의 힘으로 1,800석 오페라하우스 만석 기록
- 문화공헌프로젝트의 팀워크를 활용한 프로그램구성
 - 짧은 시간에도 공연구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음
- 전문가와 결합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사랑방문화클럽 회원의 질적 성장 계기 마련
 - 개막행사 및 전시, 오페라하우스 공연, 전문가와 만나다 워크숍 진행
 - 장르통합형 시민문화예술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 사랑방문화클럽의 외연을 넓혀 시민문화동아리로 확대 계기 마련
- 문화통화 장터 수익금(160만원)을 지역 내 아동센터의 기타 구입비로 기부
- 전시 및 공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축제 예술감독 형식 도입
 - 축제 수준의 질적 제고와 전문성 지향
- 축제의 주제 및 테마를 설정
 - 축제 콘텐츠를 생산하고 주제에 따른 공동 작업 및 참여를 강화
- 개선점
 - 성남문화예술클럽한마당 행사 진행했으나 참여도는 아직 미진
 - 다양한 참여와 체험프로그램 강화 필요
 - 홍보의 미비 : 행사 인지도가 아직도 낮음
 - 언론, 방송, 옥외홍보 등에 예산과 노력 필요(지역과 중앙매체의 효과적 활용)
 - 일반관람객과 시민문화동아리의 관심과 참여 방안 적극 개발 필요
 - 실내공연과 실외공연의 특성화
 - 실내공연장은 질 높은 작품이 공연될 수 있도록 함
 - 축제성을 살리기 위해 야외공연을 적극 확대(소음관련 민원이 적은 곳)
 - 축제기간을 '성남시민의 날' 과 연계하여 성남시민의 축제로서의 가능성 타진
 - 비슷한 시기의 행사를 연계하여 집중하되 각 행사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진행
 - 기획팀 강화와 축제추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으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기획



<그림 12> 제5회 사랑방클럽축제(2011)

6) 제 6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2012년)

(1) 개요

- 행사명 : 제6회 사랑방클럽축제
- 테마 : 탄천 아리랑
- 기간 : 2012. 10. 8(월) ~ 10. 14(일) (7일간)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야탑역 광장
- ※ 2단계 5개년(2009~2013) 계획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 교류 추진 '에 따라 다 지역 시민문화예술클럽과의 축제 참여 기획과 실행을 추진

(2) 주요 일정 및 프로그램

구분	일시/장소	내용		
사랑방클럽축제 개막행사 '상징물 제작 & 축하공연'	10. 8(월) 17:00~18:00 성남아트센터 출입광장	○ 축제 개막 알리고 시민, 내외빈과의 축하 나눔 : 개막 돛대 펼침		
		○ 사랑방 전시클럽들의 공동작업의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 공공미술작가와 함께 우산과 깃발로 만든 축제상징물 제작 ○ 사랑방 공연클럽 축하 공연 : 어린이모듬북팀 '그루터기', 푸른 초장브라스밴드, 을지레인보우합창단, 사랑방문화클럽한미당'오감만족팀' ○ 축제를 주제로 사랑방에서 창작한 '탄천아리랑' 합창		
사랑방클럽축제 기획워크숍	○ 전시분야(황환일 작가)			
	구분	일시	장소	내용
	1차	8.30(목) 19:00	컨퍼런스홀	- 전문가와 함께 하는 공동창작 작업의의와 실제
	2차	9.25(화) 10:00	자유미술작업실	- 일상 생활용품인 우산을 가지고 축제 주제인 '탄천아리랑'을 형상화 - 400여개의 우산 수집 : 전시클럽과 공연클럽 참여 - 조형물 제작 : 황환일 작가 작업실에서 공동 작업 진행
	3차	10.25 (목) 16:30	뮤즈홀	- 작업결과물(축제상징조형물)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안 : 평가 워크숍 진행
	○ 공연분야(김시번 연출)			
	구분	일시	장소	내용
	1차	8.28(화) 19:30	컨퍼런스홀	- 사랑방 오페라하우스 특별공연의 주제와 컨셉
	2차	9.15(토) 14:00	오페라하우스 컨퍼런스홀	- 특별공연 구성과 드라마트루거 - 오페라하우스 백스테이지 투어
	3차	10.25(목) 19:00	컨퍼런스홀	- '사랑방 오페라하우스 특별공연'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안

사랑방클럽展	10.8(월)~10.14(일) 10:00~19:00 미술관본관 & 사랑방특별전시장	○ 전시클럽의 '사랑방문화클럽한미당' 성과를 전시 - 다문화가정과 청소년수련관 장애인 미술 체험 작품 전시 : 사랑방특별전시장, 미술관 본관 외벽 및 복도 그림과 공예작품 전시 - 미술관 본관 전시 : 18개 전시클럽 178명 작품 전시 - 특별전시장(다문화아카데미, 방과후아카데미 중원 및 서현청소년수련관) : 미술 및 공예 작품 188점 전시 ○ 도록 제작(700부), 미술관 본관 앞 대형 현수막, 배너 설치
		○ 2012 사랑방문화클럽한미당 팀별 연합 공연 - 6개팀 34개 클럽 421명이 참가한 대공연 ○ 전국시민문화클럽한미당 초청공연 - 풍물팀들의 길놀이와 여는 무대 진행(* 익산팀은 사고로 불참) ○ 주제를 형상화한 이야기가 있는 극품 구성 - 탄천설화를 차용하여 성남의 힐링캐프, 사랑방문화클럽을 드러냄 - '탄천아리랑' 창작과 공연시 관객과 함께 합창
오페라하우스 특별공연 '돌아온 삼천길자 동방삭, 함께 부르는 탄천아리랑'	10.13(토) 19:00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 공예품, 전시소품 등 작품 판매 : 리본, 한지, 펠트, 천연비누공예 등 452점 - 회원들의 물품 교환 장터 : 의류, 신발, 시계, 인형 등 100여점 - 현장 체험부스 운영 : 닥종이 고무신(판매와 집객 효과) - 판매금액의 기부 :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에서 대상 결정
문화나눔장터	10. 8(월), 10. 13(토) 14:00~19:00 / 오페라하우스 광장(부스 설치) 10. 9(화)~10. 12(금) 10:00~19:00 / 아트센터 미술관본관 입구	○ 다문화장터와 공연 - 2012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시범사업의 일환 - 부천문화재단, 화성문화재단과 연계 : 00은대학 주관 - 문화통화사업 홍보 및 거래 활성화에 기여 - 부스(음식, 악서사리, 게임 등), 공연단(베트남, 몽골 등 3팀)
전국시민문화클럽 한미당	10. 13(토) 14:00~17:00 중앙공원야외공연장	○ 풍물연합관놀이 - 성남을 비롯하여 춘천, 청주, 대구, 수원, 의정부, 의왕, 고양 등 14개 클럽 145명 참석 - <오페라하우스특별공연> 길놀이 참가 : 수원, 의왕, 성남 등 30여명
		○ 합창, 통기타, 밴드, 하모니카, 아카펠라 등 다양한 장르의 거리공연 - 성남을 비롯하여 서울, 인천, 용인, 청주, 화성 등 9개 클럽 65명 참가 - 행사 후 자발적인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연계 활동 공감대 형성

(3) 참가자 현황

- ① 사랑방문화클럽 출연진
- 공연 : 총 57개클럽 / 631명 출연

(춘천, 청주, 대구, 수원, 의정부, 의왕, 고양, 서울, 인천, 용인, 화성 등 11개 지역, 19개 클럽 참가)

- 전시 : 총 18개클럽 / 178점 전시 / 178명 참여
- ② 관람객 : 미집계

(4)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클럽대표들로 구성

구분	인원
위원장	1
기획실장	1
공연팀	8
전시팀	8
홍보팀	7
운영팀	6
문화통화팀	4
대외협력팀	6
총계	41

-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2012. 6. 16 ~ 6. 17. 을지인력개발원(강원도 양양)
 - 참석자 :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기획팀원, 재단직원 등 24명
 - 내용 : 축제추진 방향, 역할분장 및 운영방안, 홍보 및 프로그램 활성화 논의
 - 축제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상시 회의를 개최

(5) 성과 및 개선점

- 성과
 - 전시의 경우 2011년 보다 상징성이 강했고, 작품설치 공간도 좋았음
 - 다문화가정과 장애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전시가 이루어져 사회공헌성이 높았음
 - 지역 소재를 활용한 축제 콘텐츠를 생산
 - ‘탄천’ 과 ‘동방샷’ 등의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작
 - ‘탄천 아리랑’ 이라는 성남만의 아리랑 창작
 - 공연 구성과 스토리가 짜임새가 있었음

- 공연전문가가 예술감독(연극연출가 김시번) 역할을 수행함
- 문화통화 장터 수익금(136만원)을 지역 내 최연소 간이식 기증 청소년에게 기부



<그림 13> 제6회 사랑방클럽축제(2012)

- 개선점
 - 전시팀의 경우, 자신 그림만 제출하고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이 많았음. 적극적 축제 참여활동 동기 부여가 필요함
 - 공연팀의 경우 관객에 대한 인식 없이 자기 공연만 집중한 문제점 발생
 - 자기 공연 후 타 클럽 공연에 대해서는 무관심
 - 사랑방클럽축제가 사랑방문화클럽을 위한 것인지, 시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발생
 - 전체적인 축제 준비 기간이 짧았음. 이후에는 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사랑방문화클럽회원 중 축제연출을 맡아야한다는 의견 제시
 - 홍보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
 - 보여지는 축제가 아닌 사랑방문화클럽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희망

7) 제 7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2013년)

(1) 개요

- 행사명 : 제7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 ※ 그동안 사용하던 ‘사랑방클럽축제’에서 ‘사랑방문화클럽축제’로 변경
- 테마 : 생활예술의 새로운 물결
- 기간 : 2013. 10. 8(월) ~ 10. 13(일) (6일간)
- 장소 : 성남아트센터, 분당구청 잔디광장,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 ※ 2단계 5개년(2009~2013) 계획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 교류 추진 ‘에 따라 타 지역 시민문화예술클럽과의 축제 참여 기획과 실행을 추진

※ 성남산업진흥재단의 ‘국제 게임페스티벌’ 과 연계하여 추진
 ※ 2012년 문화부 ‘지역문화전통브랜드’ 대상을 계기로 전국의 생활예술동아리가 참여하는 <전국시민문화예술클럽한마당>을 개최함. 또한 이 행사는 2013 ‘문화의 달’ 행사와 연계 추진됨

(2) 주요 일정 및 프로그램

구분	일시/장소	내용
사랑방클럽 사랑방클럽 ‘작가와 의 만남’	10. 8(월)~13일(일) 10:00~18:00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본관	○ 사랑방문화클럽 미술, 공예, 사진클럽 작품 전시 - 클럽별 부스 기획전(21개 클럽, 183명, 183점 전시) - 참여클럽: 늘미랑, 늘빛 포토, 다사랑화, 도화지애, 르빠레뜨, 분당 헤드로잉, 분당민화, 분당수채화가회, 수미화, 수선화, 신문지공예, 아름다디, 여성사진가회, 예다움, 예랑한지, 오방지회, 은빛으로, 정림, 토향, 하늘빛아뜰리에, 한뼘 한지공예, ○ 장애청소년, 다문화가정(24명, 24점) 등 사랑방문화클럽 한마당 활동 성과 전시 ○ 사랑방클럽전 오픈 - 8일 17:00 - 사랑방클럽전 오픈 기념 행사(로망스 기타합주단 축하공연) ○ 클럽전 음악회 - 9일~13일, 16:00~16:30 - 전시와 공연을 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랑방클럽 전시, 공연클럽의 교류 및 협력 ○ 사랑방소품전 - 8일~13일 - 사랑방문화클럽 미술, 공예 클럽이 제작한 소품 판매
	10. 8(월)~13일(일) 15:00~15:30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본관	○ 지역의 전문 미술작가 5명 초청 연합전 - 클럽별 부스전과 함께 전시 - 참여작가 : 김보연, 김주철, 명은옥, 유미영, 최근선 ○ 작가와의 좌담 및 해설
시민과 함께하는 사랑방축제	10. 9(수) 15:00 울동공원 야외무대	○ 2013 ‘공원으로 찾아가는 사랑방축제: 8개클럽, 71명 - 아나마토 만들어진 앙상블, 타악그룹 울, 경기민요 청실홍실, 분당요들클럽, 여섯줄사랑, 포엠송, 그룹내밴드 5기, 성남시 버들파리 음악 봉사단
	10. 9(수) 19:00 모란오거리	○ 2013 본도심 사랑방 통기타축제: 4개 클럽, 30명 - 고은소리, 기타홀릭, 마틴팬더김슨, 흰어울
	10. 10(목) 15:00 모란역 8호선10번출구	○ 2013 지하철로 찾아가는 사랑방축제: 9개 클럽, 107명 - 아침울타리두드림 국악단, 쥬블리 오카리나 앙상블, 팬플룻동호회, 비전콰이어, 에듀플루트윈드오케스트라, 성남RCY청소년오케스트라, 그룹 내 밴드 1기밴드, 타라난타동호회, 분당색소폰클럽
문화나눔장터	10.8(월)~10.12(토)	○ 문화통화를 활용한 사랑방문화클럽 작품 거리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본관 앞 로비/분당구청 잔디광장	- 미술품, 공예품 및 기증작품 - 회원들의 물품 교환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상징조형물	10. 8(월)~13일(일) 10:00~18:00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본관	○ 물(환경)을 주제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이 조형물을 제작, 전시 - 설치작가인 황환일 작가와 사랑방문화클럽 전시팀이 공동작업																				
		○ 전국시민문화예술클럽한마당 - 경연 및 클럽 간 교류 - 전국 18개 지역, 48개 클럽, 599명 참가																				
전국시민문화클럽 한마당	10. 12(토) 12:00~15:00 분당구청 잔디광장 특설무대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총계</th> <th>타 지역 참여 클럽</th> <th>성남시 소재 참여 클럽</th> </tr> </thead> <tbody> <tr> <td>국악</td> <td>14</td> <td>8</td> <td>6</td> </tr> <tr> <td>대중</td> <td>21</td> <td>18</td> <td>3</td> </tr> <tr> <td>클래식</td> <td>13</td> <td>7</td> <td>6</td> </tr> <tr> <td>총계</td> <td>48</td> <td>33</td> <td>15</td> </tr> </tbody> </table> - 문화부장관상(강릉그린실버악단), 성남시장상(안양가족합창단), 성남시의장상(평택풍물패), 성남아트센터시장상(성남99뽕뽕클럽) - 수상 4개팀은 10월 19일 문화부 주최 ‘2013 문화의 달 행사’에 초청되어 축하공연을 가짐	분야	총계	타 지역 참여 클럽	성남시 소재 참여 클럽	국악	14	8	6	대중	21	18	3	클래식	13	7	6	총계	48	33	15
	분야	총계	타 지역 참여 클럽	성남시 소재 참여 클럽																		
국악	14	8	6																			
대중	21	18	3																			
클래식	13	7	6																			
총계	48	33	15																			
	10. 12(토) 15:00~18:00 분당구청 잔디광장	○ 시민문화클럽박람회 : 70개 클럽, 750명 - 클럽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부스별 친목, 교류 박람회 - 개막식/상징조형물 제막 - 클럽별 부스 프로그램/다문화축제/전통놀이/공예체험 등 - 화합의 비빔밥 이벤트																				
	10. 12(토) 15:30~17:00 분당구청 대회의실	○ 전국 생활예술네트워크 포럼 -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과 전국 교류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논의 - 정종은(서울대 미학과), 조현성(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보성(마포문화재단), 정길선(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장), 하동근(성남문화재단)																				
폐막제	10. 12(토) 19:00~21:00 분당구청 잔디광장 특설무대	○ 제7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폐막식 -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 시상식 및 앵콜 공연 - 사랑방합창단 특별 공연																				

(3) 참가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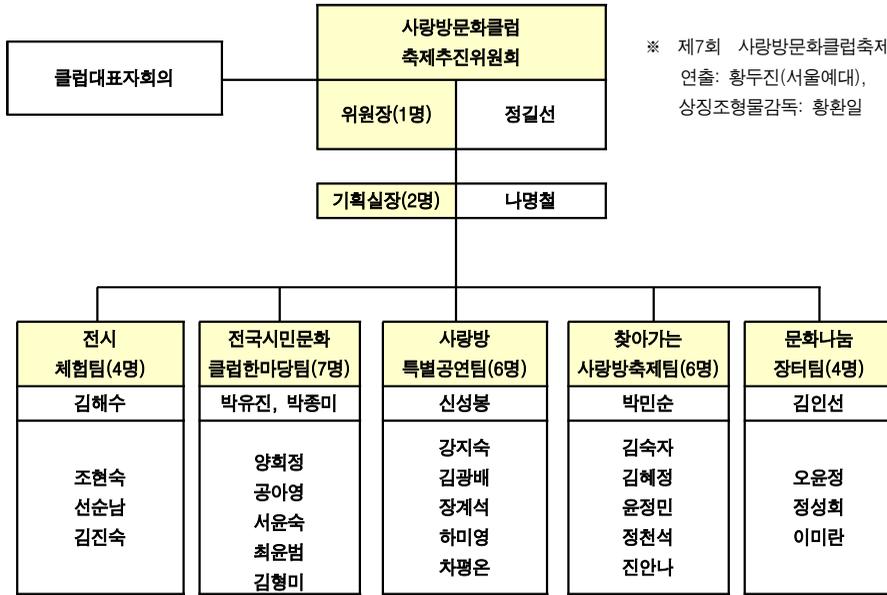
- ① 사랑방문화클럽 출연진
 - 공연 : 총 91개클럽 / 958명 출연
 - 전시 : 총 21개클럽 / 183점 전시 / 183명 참여(지역 작가 5명 참여)

② 관람객 : 미집계

(4)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클럽대표들로 구성
- 2013년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은 예년과 다르게 클럽대표자회의를 추가, 조직함
- 이는 클럽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축제추진위원회 논의 내용들이 각 클럽들에게 상세히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함
- 또한,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 등 새로운 기획에 맞게 재편성함

<표 13> 제7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추진위원회 조직도



<그림 14> 제7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부스전 및 다문화축제(2013)



<그림 15> 제7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 수상팀(2013)



<그림 16>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 수상팀 문화부 문화의 달 행사 초청공연(2013)

○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2013년 3월 23일(토) ~ 24일(일), 에코그린타운펜션(경기 용인)
- 참석자 :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기획팀원, 재단직원 등 27명
- 내용 : 축제추진 방향, 역할분장 및 운영방안, 홍보 및 프로그램 활성화 논의
- 축제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상시 회의를 개최

(5) 성과 및 개선점(2013년 축제 평가 진행 중이어서 본 연구에 삽입하지 못함)

2. 사랑방문화클럽축제 평가

1) 성과

- 사랑방클럽 축제는 2007년을 시작으로 매년 9월~10월 중 개최되었으며,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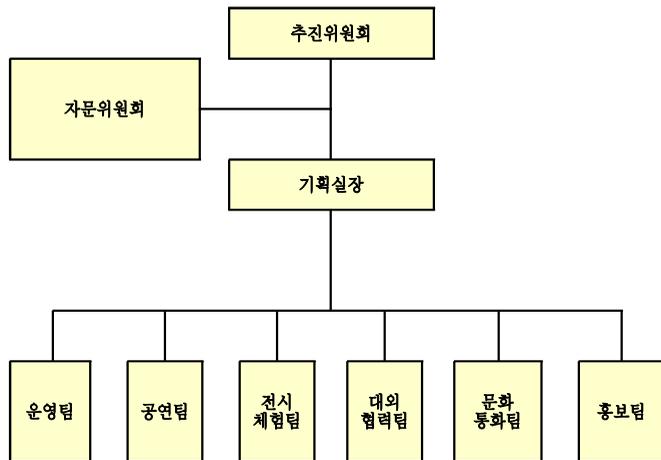
현재까지 7회 진행되었음

- ‘시민 스스로 기획하고, 창조해 나가는 시민의 축제’ 라는 슬로건을 동일하게 내걸고 진행해 옴
- 이는 성남시가 단계별 문화도시정책을 수립한 것과 내용을 같이 하고 있음⁸³⁾

<표 14> 성남문화재단 2020 문화도시정책 단계설정

단 계	시 기	과 제	내 용
1단계 3개년	2006~2008	기초다지기	시민주체 형성을 위한 시범사업
2단계 5개년	2009~2013	구조세우기	문화공동체의 시스템 만들기
3단계 7개년	2014~2020	몸체만들기	세계 속의 ‘예술시민의 도시’ 정립

- 사랑방클럽 축제는 <표 14>에서 보듯이 성남시 문화정책 단계별 과제에서 선언한 1단계, 2단계 속에서 기초다지기 과정과 구조세우기 과정이 축제로 응축될 수 있도록 축제를 구성하였음
- 특히 1회 축제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클럽의 단계적 성장을 제고하면서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랑방클럽 외 성남지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동호회에게도 문호를 적극 개방하였음
- 또한, 재단과 협력관계를 통해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 시민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추진체계를 갖추



<그림 17> 사랑방문화클럽축제 민관협력 조직구성

83) <성남문화재단 5대정책 2단계 5개년 발전방안연구>, 성남문화재단, 2009

- 이후 2회부터는 클럽의 연합공연을 시도하여, 지역을 넘나드는 장르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아트센터의 극장을 클럽에게 개방하여 보다 내실있는 축제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이를 통해 시민 간 교류확대와,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음
- 4회 축제에서는 ‘시민오케스트라 페스티벌’, ‘대가를 만나다’를 통해 질적 도약과 예술세계의 전망을 창출하고자 하였음
- 5회에 이르러서는 문화공헌프로젝트의 성과를 담아내려는 시도를 통해, 일상적 클럽네트워크 활동의 성과가 축제를 통해 응축, 발현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함
- 6회 및 7회 축제는 전문가와 결합한 프로그램 구성이 자연스럽게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사랑방문화클럽의 외연을 넓혀 전국의 시민문화동아리의 대표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사랑방클럽 축제는 전반적으로 지역주민의 동력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민에게 흡수 및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축제추진위원회 속에서 다양한 소통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6회 및 7회의 경우 성남아트센터가 시민문화활동의 본격적인 장으로 탄생됨에 따라 문예공론장으로서 극장의 역할론이 화두가 될 수 있었음
- 이처럼 진행된 축제를 5대 정책사업과 상호 비교를 해보면 축제를 통해 귀결되는 내용을 <표 15>와 같이 나타내 볼 수 있음

<표 15>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창조도시 5대정책과 사랑방클럽축제

년도	문화도시 성남시의 정체성 구축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성남시민의 창작활동 진흥	문화통화 시스템 기반조성
2007	*지역 현황 조사를 통한 축제의 내실화	*예술 향유 기회 확대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지원.	*수요 및 욕구조사	*문화통화 기본체계 구축 및 모델운영
2008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동체 모인 개발 및 확대추진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지원 및 확대	*지원책 수립 및 이행	*문화통화 네트워크 운영
2009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문화재단, 시민클럽, 동네주민의 참여와 협력관계 구축 *동네기반 조직확대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지원.	*지원책 수립 및 이행	*문화통화 네트워크 운영
2010	*도시, 시민, 동네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 계획수립 *문화예술 창조도시 포지셔닝	*문화재단, 시민클럽, 동네주민의 참여와 협력관계 구축 *동네기반 조직확대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지원. *	*창작기회 확대 *축제 참여 *창의적 시민 양성	*문화통화 네트워크 운영 및 축제참여
2011	*도시, 시민, 동네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 계획 진	*문화재단, 시민클럽, 동네주민의 참여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지원 및 확대	*창작기회 확대 *축제 참여	*문화통화 축제 참여

	행 *문화예술 창조도시 구축 진행	와 협력관계 구축 *동네기반 조직확대	*축제연출가 및 축제 진행전담인력 운영	*창의적 시민 양성	
2012	*도시, 시민, 동네의 통합 적 시스템 구축 계획 진 행 *문화예술 창조도시 구축 진행	*문화재단, 시민클럽, 동네주민의 참여와 협력관계 구축 *동네기반 조직확대	*사랑방문화클럽 활 동지원. *축제연출가 및 축제 진행전담인력 운영	*창작기회 확대 *축제 참여 *창의적 시민 양성	*문화통화 축제 참여
2013	*도시, 시민, 동네의 통합 적 시스템 구축 계획 진 행 *문화예술 창조도시 구축 진행	문화재단, 시민클럽, 동네주민의 참여와 협력관계 구축 *동네기반 조직확대	*사랑방문화클럽 활 동지원. *축제연출가 및 축제 진행전담인력 운영	*창작기회 확대 *축제 참여 *창의적 시민 양성	*문화통화 축제 참여

- 정리하면, 지금까지 성남문화재단은 1,2단계의 정책과제를 진행해오면서 지역주민의 감추어진 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 동력을 점차 이끌어 왔음
- 또한 ‘시민예술’이라는 정립되지 않은 모호한 개념을 ‘배움-친목-공헌-숙련’이란 4개의 목적적 성질을 도출하여 이를 시민예술정책에 본격적으로 반영시키는 등의 발군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봄
- 아울러, 사랑방클럽의 축제를 진행하면서 지역성에 근거한 축제소재를 이끌어 내었고, 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확보하면서 ‘지역문화’를 찾아 발굴하는 과정을 지난 시간 만들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2) 문제점

- 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1) 매년 비슷한 축제와 공연 및 전시의 진행은 참여자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며 참여 동기를 약화시킴
- 매년 축제 프로그램이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문화클럽의 참여방식이 클럽별 공연과 전시로 정형화되는 양상이 지속되어옴
 - 4개의 속성으로 구분된 클럽에 맞는 세분화된 정책적 제안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면서 클럽의 특성이 획일화된 공연과 전시행사에 치중되는 경향마저 보임
 - 이를 개선하고자 2011년부터는 축제 테마를 정하고 이에 맞춘 연합 공연, 전시를 추진하기 시작함

(2) 지역적 소재와 클럽간의 매칭이 지속적이지 않음

- 2011년부터 탄천을 소재로 한 축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축제에 참여하는 클럽들의 활동에 충분이 반영되지 못함
- 2012년 ‘탄천 아리랑’을 창작하여 공연하였으나, 이에 대한 클럽들의 충분한 공감과 이해가 이루어지 않아 기대만큼의 성과는 이루어내지 못하고 당해연도 콘텐츠로 머물면서 클럽 및 지역 속에 확대, 안착하지 못함

(3) 클럽의 의사결정이 행정력을 넘어서기 힘든 현실

- 축제 참여 클럽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참여 동기를 복돋기 위한 클럽들의 내적 요구들을 수용하기에는 재단 행정지원의 유연성이 부족함
- 예산 수립 및 집행 기준에 따른 예산 사용의 제약 등
- 각 클럽에서 요구하는 모티브를 이행할 수 있는 재원 부족
- 운영위원회의 결정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적 제약 외 재단 내 사정 및 의사에 따라 변경,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이에 따라 시민의 자발성을 담보하는 방법의 다양성이 구축되기 어려움

(4) 축제 운영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이 부족

- 매년 축제추진위가 구성되고 각 분야별 업무분담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원에게 업무가 과중하게 부담됨
- 각 분야별 업무분담이 명확히, 세밀하게 나누어지지 못해 팀장의 부담이 커짐
- 팀장의 경우, 일반 시민(생활인)에게 재단 직원과 같은 업무 분담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음. 팀장을 지원해야 할 팀원의 경우 역할부담이 부족한 면이 발생함
 - ※ 팀원들의 개인사정도 이해해야 함. 그러나 효율적인 업무부담이 팀의 축제 준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항이기도 함
- 따라서, 같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팀장에게 업무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
- 팀장 외, 각 클럽들에게도 역시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클럽회원에겐 역할이 집중됨
- 축제가 ‘즐거운 일’이 아닌 ‘고되고 힘든 일’이라는 의식을 발생하게 함

(5) 성남시를 대표하는 ‘사랑방클럽축제’라는 슬로건에 못미치는 홍보 부족

- 2013년 현재 7회째를 개최하였지만, 아직 지역 내 사랑방문화클럽축제에 대한 인

지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임

- 홍보 관련 예산이 부족한 편이나, 클럽들을 통한 대 시민 홍보, SNS 홍보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노력이 부족
- 이에 따라 축제 참여 관람객이 참여 클럽 회원의 가족 및 지인으로 한정됨. 일반 시민 관람객의 관람과 참여가 보다 확대되어야 함

(6) 축제 참여 클럽 간 교류, 이해, 화합 정도가 기대보다 미흡

- 기획 및 실행 상 문제기이도 하나, 축제 참여 클럽들의 활동과 의식도 아쉬운 점이 있음
 - 소속 클럽 공연 및 전시에만 참여하고 타 클럽의 활동에 대해 관심이 적음
 - 자기 순서가 끝나면 행사 장소를 떠나거나, 찾아온 지인들과 함께함
 - 이는 참여 클럽 각 회원에게 축제의 취지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이 있음
 - 축제 관련 정보가 클럽 대표에게만 전달되어 전체 회원들이 공유하지 못함
- 축제가 화합의 장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 과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보여짐

(7)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장기적 전망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음

- 사랑방문화클럽축제가 ‘단순 클럽들의 발표의 장’으로 머물 것인지 ‘시민 생활예술의 예술적 수준의 향상을 지향한다’ 등의 구체적 지향목표가 부재한 상황임
 - 이에 대한 내부적 논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 구체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 않았고, 현재는 사랑방문화클럽축제가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 중 ‘하나’ 또는 연장선에 머물고 있음
- 그 고유 성격과 목적이 상위 정책적 기획의 기존에서 보다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상태임

3)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향후 발전방향 제언

- 라도삼은 마을문화운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마을문화활동이 ‘삶의 만족도’와 ‘거주지역 만족도’를 살펴본결과 모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함⁸⁴⁾
 - 일반 시민과 마을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지역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마을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이 그렇지 않은 주민

84) <마을문화운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라도삼, 서울연구원, 2012

사이에 유의적 수준의 만족도 차이 발생⁸⁵⁾하고 있음을 언급함

- 또한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에 중요한 요소로, (1)주민의 예술역량 강화를 위한 동아리 발굴 및 육성, 발표공간 지원, 숙련프로그램 제공, (2) 리더(리더집단)의 형성과 재생산체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적자원 육성정책, (3)평가체계의 개선 (4)전문가 및 프로그램 지원시스템 구축을 제안⁸⁶⁾
- 이는 생활관계망 속에서의 문화예술활동의 성과에 대한 중요한 언급임. 즉 앞서서 본 성미산마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래와 같은 결과로 인한 만족도의 상승이라고 봄
 - 일상생활의 관계망 속에서의 문화예술육구와 관심사의 공유
 - 이를 통한 자발적 결합과 주체적 활동
- 따라서 위의 언급과 앞선 은평구와 성미산마을의 사례를 기초로 본 성남문화재단의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음
 - 기존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한 전면적인 육구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축제와의 유연한 결합 방안이 필요함
 - 앞서 성미산동네연극축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예술동아리의 성격은 동아리의 결성 계기와는 별개로 동아리의 활동에 따른 구성원의 육구에 따라 변화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이는 ‘예술활동의 근원적인 육구’와 맞물린다고 봄
 - 즉, 구성원이 선택한 예술장르에서의 만족도가 일정 부분 충족된 상태에서 ‘나’를 넘어선 ‘우리’에 대한 시선을 확보할 수 있음. 이는 단계적인 것이 아니라 동아리활동의 일정 시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 바로 ‘생활예술의 형태와 속성’으로 이해함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그 형태와 속성이 유동적이라는 것임
 - 그래서 클럽 및 클럽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위한 새로운 육구조사와 이를 통한 축제참여형태의 결정과정이 매해 필요하다고 봄
 -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을 통한 사랑방문화클럽의 확대
 - 마을공동체기반의 문화예술동아리 잉태와 사랑방문화클럽으로의 결합의 필요성
 - 사랑방문화클럽 및 축제와의 지속적이고 단계적 결합 과정이 필요함
 - 위 두 방안에 대한 활동의 밀착성과 지속성 및 일관성을 위한 문화예술활동가의 양성과 문화재단 내 전담체계 구축 및 지원이 필요함
 - 사랑방문화클럽 및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에 사업에서 ‘문화예술활동가’ 발굴
 - 기존 사랑방문화클럽의 구성원 중 팀장에 해당하는 인원들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 방안모색

85) 상계서

86)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 방안연구>, 백선혜 외, 2008)

- 각 팀장들의 일정기간 활동 가능성 확보 및 재정 지원
- 이들을 원활한 세대교체를 위한 장치 마련
- 이들의 통한 매개자, 조율자, 관찰자, 더 나아가 예술강사의 역할 기대
- 문화예술활동가의 발굴 및 양성, 활동지원의 역할
 - 문화재단 내 활동가 발굴 및 양성, 활동지원 전담체계구축: 성과평가에 대한 고려
 - 문화예술활동가의 거점 공간 마련 및 이를 통한 동아리 교류/연대/매개공간 마련
 - 이들을 통한 주민육구를 반영한 주민프로그램 기획 및 축제 반영.
- 축제전담기구의 상설화 및 자율성 부여
 - 사랑방문화클럽 축제의 전담기구 마련 및 활동가를 통한 상근인력체계 구축
 - 문화재단 내 전담체계를 통한 적극적 의견 조율 및 지원
 - 이를 통한 축제의 상과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문화예술활동가와 문화재단 내 전담체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기반 프로그램 활동
 - 주민 육구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세대별 육구를 반영한 문화예술프로그램
 - 배움에서 자생적 동아리 결성 및 활동 유도 프로그램
 - 동아리 자생력 강화 프로그램
- 사랑방문화클럽의 경우, 기존 축제프로그램 중 호응도 조사 및 지속적 활동 지원
 - 공감과 연대를 위한 장르별 구성원 교류 프로그램 마련
- 위 내용과 성남문화재단의 지금까지의 진행결과를 고찰해보면 지금까지 성남문화재단은 시민의 자생적인 문화활동을 꾸준하고 치밀하게 지원해오면서 다양한 문화적 육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삶의 만족도’와 ‘지역만족도’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함
 - 이를 통해 현재 사랑방클럽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한계라기보다 새로운 동력이 제공되어야 할 시기라고 보여짐
 - 공공문화개발센터인 유알아트의 사례에서 그 새로운 동력을 가능할 수 있음

유알아트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일상적, 공공적 문화활동을 통해 시민이 주체적으로 문화를 생산하고 누리고 공유하는 사회공동체적 문화예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시민참여예술을 근간으로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소통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공공문화의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문화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참여와 창작을 통한 대중의 문화적 권리를 되살려 문화 에너지가 충만한 시민사회 형성, 대중들의 예술 창작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당신도 예술가’와 같은 시민문화예술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⁸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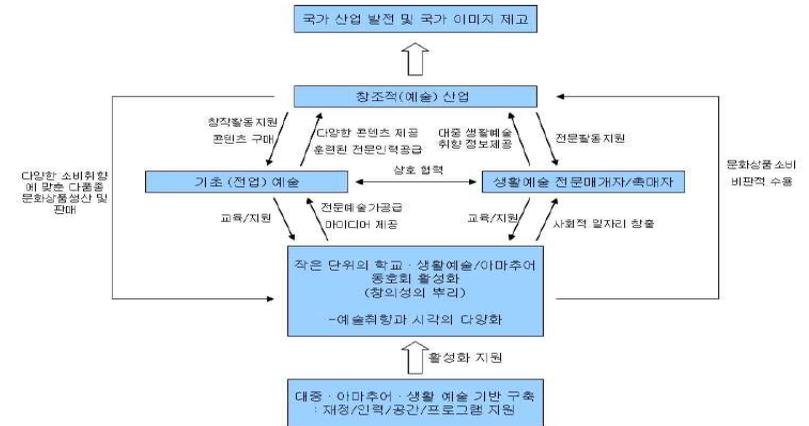
- 또한 전병태는 보다 많은 대중의 예술 참여를 통해 예술의 접근성 확대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면서 보다 많은 다수를 위한 예술,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예술, 공동체의 관심을 반영하는 예술을 지향하는 것이 커뮤니티 아트 목표라고 함⁸⁸⁾

- 이와 관련하여 국공립공연장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표 16>⁸⁹⁾과 같은 예로 들었다. 그리고 이를 창조적 산업의 선순환 구조로 이행됨을 나타낸 도식은 <그림 18>⁹⁰⁾과 같음

<표 16> 국공립공연장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정리

프로그램의 종류	프로그램 내용	기대효과
창조체험 프로그램	·교육연극 프로그램 ·정기예술강좌 ·창조체험 워크숍 ·연극 합창 등 공동창작 프로그램 ·은퇴자 노인 참여마당	·문화예술 감수성 배양 ·상호간 공감과 인식 확대 ·문화민주주의 구현 및 지역문화 창조
사회통합 프로그램	·청소년,세대간, 계층간 소통회복 문화예술 프로그램 ·여성문화 프로그램 ·이주민, 장애인 예술 모임 프로그램	·사회적 문제에 대한 문화적 대응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센터로서의 문예회관
생활예술 동아리 프로그램	·동아리 조직 장려 ·창조체험 프로그램 이후 소모임 장려 ·자발성과 경험이 축적된 강사 배치 등 공간지원 ·동아리 문화예술제 개최	·창조력 배양 및 삶의 질 고양 ·계층간 교류와 소통증진 ·공동체의 이해와 연대



<그림 18> 생활예술과 창조적 산업의 선순환 구조

87) 유알아트 홈페이지 www.urart.org 인용 및 참조
 88) <커뮤니티 아트 진흥방안연구>, 전병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89) 상계서
 90) 상계서

- 이는 은평누리축제와, 일본 각지역의 축제운영방식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으로서, 크게 ‘(개인의)모티브, (상호간)소통, (지역내)공동체성’을 공통분모로 함
-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제안할 수 있음

- ①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목적
 -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목적을 두기보다 성남지역 공동체의 역사, 현실, 미래, 성취의 축하, 문제와 대책 제시 등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들을 예술적인 방법을 통해 사랑방문화클럽 구성원들 간에, 그리고 관련된 주체들과 공유하고 이해를 같이 하거나 높이는 것이 필요
 - 축제의 행위자와 감상자가 이분되지 않고, 사랑방문화클럽의 구성원들이 활동의 행위자이자 감상자로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②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역할
 - 생활에서 감춰져 있거나 억압된 사상과 표현의 욕구를 예술적인 방법을 통해 발현하여, 공동체가 구성원들의 다양한 사상, 의견, 표현을 폭넓게 포용하고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이해를 도움으로써, 건강하고 발전적인 공동체 조성의 핵심적인 이벤트 역할
- ③ 소재의 선택과 효과
 - 구성원들의 생활과 거리가 있는 소재가 아닌, 구성원들이 생활에서 접하는 소재들을 예술활동의 주요 소재로 다룸으로써, 구성원들이 생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여(객관화)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게 되고, 구성원들이 익숙하여 잊고 살게 되는 생활소재의 가치를 새롭게 재발견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효과(refresh)
- ④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예술적 가치의 인식
 - 생활예술축제에서 예술은 어디까지나 목적이 아닌 매개로서 더 주요한 활용가치를 갖게 됨
- ⑤ 유의사항 & 오류
 - 전문성과 완성도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술활동(축제 준비)의 과정이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결과물(축제의 전시, 공연, 설치 등)이 지나치게 미흡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반대로 전문성과 완성도를 지나치게 주요하게 다루면, 축제의 본래 가치와 역할이 변질될 수 있음
- 따라서 시민 주도의 축제의 운영 원리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 낼 수 있으며, 이를 사랑방클럽 축제 운영의 주요 요소로 삼을 수 있음

<표 17> 축제운영 요소에 따른 운영 원리

축제운영 요소	운영 원리	효과
모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시행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⁹¹⁾ ▪생활밀착형 민관거버넌스 시스템은 주민지원형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함 	만족감 강화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럽의 역사성과 활동목표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다수의 활동영역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함(4개 클럽 구분) ▪프로그램 소재의 일방적 제공보다는 요청되는 프로그램, 창조체험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의 제공이 다양해야 함 ▪축제진행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나열식 보다는 핵심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는 축제를 구성함 	커뮤니케이션 구조 확립
지역공동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예술축제는 지역성과 특색을 담아내는 축제로 형성되어야 함 ▪공간가능한 지역적 소재를 공유하고 축제참여의 간단한 원칙과 자율성에 대해 큰틀에서 보장되어야 함 ▪축제 참여자들에게 연대의식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해야 함 	네트워크 강화

91) 이와 같은 사례는 영국 프린지페스티벌에서도 볼 수 있음

IV. 사랑방문화클럽축제 발전방안

1. 추진 목표

1) 생활예술 활성화와 축제를 통한 새로운 도시형 세시풍속 형성

■ 세시풍속

○ 음력 정월부터 선달까지 해마다 같은 시기에 반복되어 전해오는 주기전승의례(週期傳承儀禮)를 말한다. 우리의 고유한 세시풍속은 대체로 농경문화를 반영하고 있어 농경의례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명절, 24 절후(節候)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른 의례와 놀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세시풍속은 풍농을 예측하거나 기원하는 의례로서, 주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공고하게 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해방되어 일탈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해방구의 역할을 해 왔음
- 세시풍속을 현대적 문화예술축제의 의미로 풀어보면, 매해 일정 시간과 공간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행사로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동체의 염원을 기원하는 축제라 할 수 있음
- 이렇게 보면 세시풍속은 우리가 바라는 시민생활예술축제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원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불행하게도 우리 근대의 어두운 역사(일본 강점, 전쟁)와 도시 산업화로 인하여 세시풍속의 일부는 국가적인 명절로 남고(설날, 추석), 일부는 한정된 지역에서 민속축제의 형태로 명맥을 이어 오고 있음(강릉 단오제 등)
- 현재 세시풍속이 본래 갖고 있던 공동체 축제로서의 기능은 거의 사라졌음
 - 특산물 축제를 제외하고, 현대 도시의 문화예술축제는 자연변화나 농경문화와 큰 상관이 없이 개최되고 있음
 - 즉 현재 한국에는 도시의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대부분이 참여하게 되는 축제가 거의 없어졌다는 것임
- 성남은 자연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거나 농경문화에 기초한 도시가 아님
- 따라서 인위적인 기획이나 연출을 하지 않는 이상,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는 축제를 개최하기 매우 어려움
- 성남은 사랑방문화클럽의 활동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예술을 생활 속에서 향유하는 시민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점차 확산되고 있음
- 사랑방문화클럽들의 활동과 이를 집약·발산할 수 있는 축제를 통해 우리 고유의 세

시풍속이 갖고 있는 순기능을 현재 성남에 되살릴 수 있다고 봄

- 다만, 그 시기와 장소,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자연변화와 농경문화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의 도시특성, 시민의 생활패턴, 시민생활예술의 실태, 미래 도시와 시민사회의 변화예측 등 중요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성남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의 상(像)을 정립할 수 있음
- 생활예술축제는 공동체의 욕구와 삶의 리듬, 생애주기, 사회적 절기 등을 반영한 현대 도시생활형 세시풍속으로 자리잡아야 함
- 이는 곧 개인과 삶, 관계와 사회의 재구성이라는 축제의 핵심역할의 충실한 반영임

2) 문화공동체를 중심으로 문화창조도시 형성과 지역사회 재생

- 문화예술공동체는 생활예술활동의 핵심 기반으로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활동의 실제적 산물이자 자산임
- 문화예술공동체는 '개인-우리-도시'의 개념으로 활동하며, 각각
 - 개인: 자발적 주체의 욕구와 관심 표현과 반영
 - 우리: 공동체 상호 간 공감과 소통, 교류와 연대의 활동
 - 도시: 공헌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과 발전, 정체성 형성에 기여 등으로 작용
- 따라서 문화예술공동체의 활동은 문화창조도시의 형성이라는 비전과 지역사회 재생이라는 공동체 강화와 발전의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음

3) 생활문화예술을 통해 시민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의 정체성 확인 및 공론 형성

- 생활문화예술은 예술개념에 있어서 예술가와 관객, 창작과 소비의 오랜 경계가 교차하고 흐려지는 영역에서 새로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예술활동의 활성화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활동들이 현대 사회가 야기하는 문제들 -공동체의 파괴, 소외감, 불안감 등등-에 대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함
- 요컨대, 생활예술은 감성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인 동시에 사회구성원의 일상적 삶의 질과 공동체적 유대, 집합적 복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함(2012, 경희사이버대: 4)
- 한편 시민들의 욕구와 관심사의 자발적인 표출은 민주주의 성립의 근간
 - 욕구와 관심의 표현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공동체와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적극적이면서도 건강한 시도임
 - 이 과정 속에서 시민은 지역사회의 주체이자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의 공론 형성의 장으로 기능함

2. 추진 과제

1) 지역문화와 문화창조도시의 비전을 시민이 연대하여 공유하고 전파하여 새로운 도시문화의 기틀 형성

- ① 문화창조도시 형성의 핵심기반인 문화예술공동체 육성과 지원 시스템 구축
- ② 문화창조도시의 비전과 정체성 공유를 위한 소통구조 및 프로그램 마련
- ③ 문화예술공동체의 육구와 관심에 기초한 연대와 공헌의 구조 형성
- ④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관계망 형성과 강화
- ⑤ 이를 통한 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정체성 공유 및 창조적 의사소통구조 마련

2) 주민주도형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통하여 문화공동체를 구조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특성과 현대 도시생활의 습속에 맞춘 축제 형성

- ① 사랑방문화클럽 및 마을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축제의 기반 마련
- ② 축제를 통한 문화예술공동체들의 잉태와 성장, 연대와 사회공헌의 기틀 마련
- ③ 시민들의 욕구와 삶의 리듬, 생애주기, 사회적 절기 등을 반영한 현대 도시생활형 세시풍속으로서의 축제 형성
- ④ 축제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욕구와 관심을 촉진하고 반영하는 소통구조 구축
- ⑤ 이를 통한 축제의 성장 및 사회적 영향력 증대와 가치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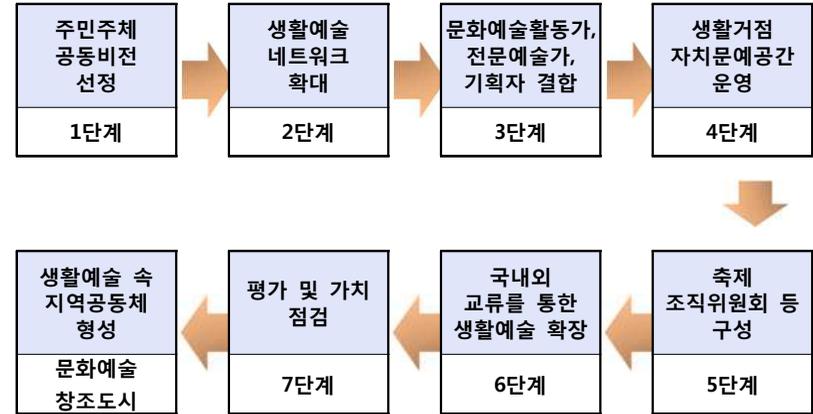
3) 축제의 제작 및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일상적·주체적 생활예술축제의 전형 마련

- ① 주민주도형 축제집행기구와 행정지원체계의 효율적 구조화
- ② 축제 구성원 상호 공감과 연대를 통한 공론의 형성 및 반영과 수용 구조 구축
- ③ 일반시민들의 참여와 확산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반과 구조 구축

4) 생활예술을 통해 문화예술의 흐름이 선순환 되는 구조 형성

- ① 문화예술공동체 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욕구와 관심의 건강한 표출과 소통구조 마련
- ② 이를 통한 생활문화예술활동의 보편적 일상화
- ③ 전문예술활동과의 교류와 공유, 이를 통한 예술생태계 전반의 공진화 구조 마련

3. 추진 방안



<그림 19>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향후 단계별 추진 방안(2014 ~ 2020)

1) 1단계 - 주민주체 공동비전 선정

(1) 목표

-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의 비전 수립 및 공유
 - 주민주체로 문화생태 도시의 가치와 비전을 수립하고 공유
 -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도시 성남과 사랑방축제의 슬로건 채택
 - 사랑방클럽의 활동목적과 방향 확인 과정 운영

(2) 실행방안

목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의 비전 수립 및 공유
효과	1. 주민의 발아로 문화도시 성남의 비전과 슬로건 채택 2. 비전의 공동수립으로 도시재생의 주민참여 모티브 및 공론장 형성 3. 생활문화 지역공동체의 가능성과 즐거움을 공유
진행 방법	○ 축제에 대한 욕구조사 (사랑방클럽회원 및 대표자 대상) ○ 클럽간, 팀별 회의 ○ 원탁회의 (대규모-대집단 회의방식으로, 뉴욕·런던·서울 등지에서 지역사회의 현안 및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위해 시행되었음)

2) 2단계 - 생활예술 네트워크 확대

(1) 목표

- 문화예술클럽의 확장과 교류를 통한 공동체 의식 형성
- 생활예술의 자발적 확장성을 신장
- 지역사회 문화예술활동가(리더) 발굴 및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2) 실행방안

목표	문화예술클럽의 확장과 교류를 통한 공동체 의식 형성
효과	1. 지역사회 문화예술활동가(리더) 발굴 2. 생활예술의 장르간, 지역간, 세대간, 목적별 네트워크 확대
진행 방법	○ 축제, 토론회, 공간활용 등을 매개모티브 제공 등

3) 3단계 - 문화예술활동가, 전문예술가, 기획자 결합

(1) 목표

- 전문인을 통한 생활예술의 성숙도 제고
- 문화예술의 항구적 동력 신장
- 생활예술, 전문예술, 상업예술 등 간의 선순환 구조

(2) 실행방안

목표	문화예술활동가와 전문예술인과의 연대와 공감, 비전 공유 전문인을 통한 생활예술의 성숙도 제고
효과	1. 배움클럽, 숙련클럽의 모티브 및 지역사회 성숙도 제고 2. 전문가 활동영역의 확장 제고
진행 방법	○ 문화재단, 시 차원의 정책사업 진행 (예: 기금사업, 지원사업 등)

4) 4단계 - 생활거점 자치 문예공간 운영⁹²⁾

(1) 목표

92) 백선훈, 라도삼(2008: 133-138)

- 생활밀착형 문예공간 형성
- 생활밀착형 공간을 통해 공론장 형성
- 문화민주주의를 통한 주민자치 형성

(2) 실행방안

목표	생활밀착형 문예공간 형성 및 운영
효과	1. 지역공동체 건설의 기초공간(사랑방) 마련 2. 문화예술활동의 잉태와 성장, 교류의 거점 공간 3. 주민자치 운영경험을 통한 문화예술활동가 배출 및 성장 4. 공간운영에 있어 자치의 원리를 통해 축제개최의 기틀마련
진행 방법	○ 주민제안 프로그램 기획 및 실현 ○ 문화재단, 시 차원의 정책사업 진행 (예: 기금사업, 지원사업 등) - 공설주민운영체제 ⁹³⁾ 운영/ 주민센터, 아트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활동공간 마련/ 공간 운영에 따른 자원 및 체계 구축 ○ 시의회 조례 제정 및 지원

5) 5단계 - 축제 조직위원회 구성

(1) 목표

- 도시의 세시풍속을 형성하는 조직위원회 구성
- 축제와 축제의 현대도시 세시풍속에서 주민의 동력을 끌어내는 실체형성

(2) 실행방안

목표	도시의 세시풍속을 형성하는 조직위원회 구성
효과	1. 도시의 세시풍속을 공유하고 전파 2. 원활한 축제와 지역사회(공간)의 조절 중추 3.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소통창구의 개설
진행 방법	○ 문화예술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클럽 간 네트워크, 공간 간 네트워크, 전문예술인 등 결합 ○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을 지원하는 행정시스템

93) 이런 생활문화예술 자치거점 공간 마련으로 1. 예술가에게 한정되어 운영되는 활동공간지원정책을 시민에게 확대하고 2. 이를 통해 동네거점 지역문예거점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자치 기틀 마련함. 공설주민운영은 사랑방클럽과 축제의 핵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간운영방식은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 방식으로 하며, 공간운영비용은 지역주민의 자력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3) 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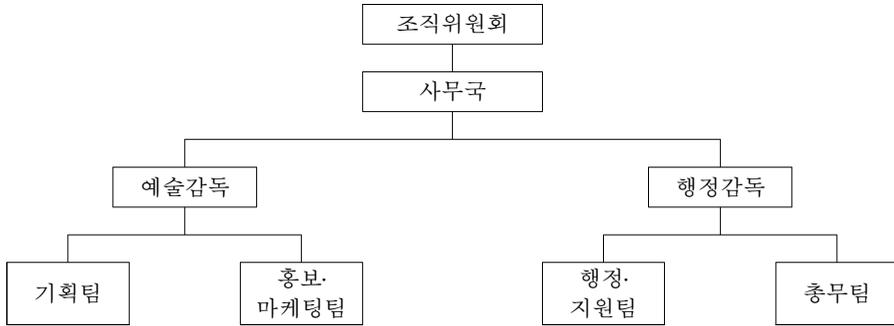
- 조직위원회 : 축제의 중장기 발전, 자원 확보, 예술감독과 행정감독에 대한 평가와 인사 조치

. 인원 : 10인 이내
 . 당연직 : 시 교육문화환경국장, 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장, 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 이외는 성남의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

- 사무국 : 예술감독, 행정감독의 2명의 감독이 상호 협조하여 축제의 내용과 운영에 대하여 책임(의무)을 다하고, 적합한 권한을 행사

. 예술감독 : 축제의 예술적 부문에 대한 책임과 권한 행사
 - 기획팀 : 축제 기획, 사업 실행
 - 홍보·마케팅팀 : 축제 홍보, 마케팅
 . 행정감독 : 축제의 행정, 지원에 대한 책임과 권한 행사
 - 총무팀 : 예산, 인사, 복지
 - 행정팀 : 행정, 지원, 협조

- 조직구성도



<그림 20> 사랑방문화클럽축제 향후 조직구성도

※ 축제 기간 약 5개월 전부터 기술팀 구성, 운영

6) 6단계 - 국내외 교류를 통한 생활예술 확장

(1) 목표

- 교류와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성장

- 축제는 연대가 주는 즐거움의 총체라는 의식 형성
- 지역사회의 건강한 경쟁과 문화예술활동가(리더) 및 전문가 풀 구성

(2) 실행방안

목표	교류와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성장
효과	1. 축제를 통한 건전한 시민의식 형성 2. 지역사회의 문화예술활동가(리더) 및 전문가 (발굴) 관계망 강화 3. 자원봉사자,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 발굴 및 확장 4. 참여하는 평가체계 운영 5. 참여 모티브, 소통에 기초한 공동체의 확인
진행 방법	○ 지역사회 문화예술활동가(리더) 및 전문가 풀 운영 ○ 생활예술 포럼을 유치하여 내실있는 축제의 방향 모색 ○ 주민이 생활문화예술강사로 지역사회를 향해 활동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 및 특성화

7) 7단계 - 평가 및 가치점검

(1) 목표

- 즐거운 평가와 진중한 가치점검 공동 모색
- 주민이 참여하는 평가와 전문인의 평가의 투트랙 평가

(2) 실행방안

목표	즐거운 평가와 진중한 가치 점검의 공동 모색
효과	1. 함께하는 평가체계 구축 2. 내실있는 전문적인 평가체계 구축
진행 방법	○ 포럼을 통한 전문 평가 구축 ○ 원탁회의 평가 ○ '배움-친목-공헌-숙련클럽'클럽간 사회의미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제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시스템 구축

8)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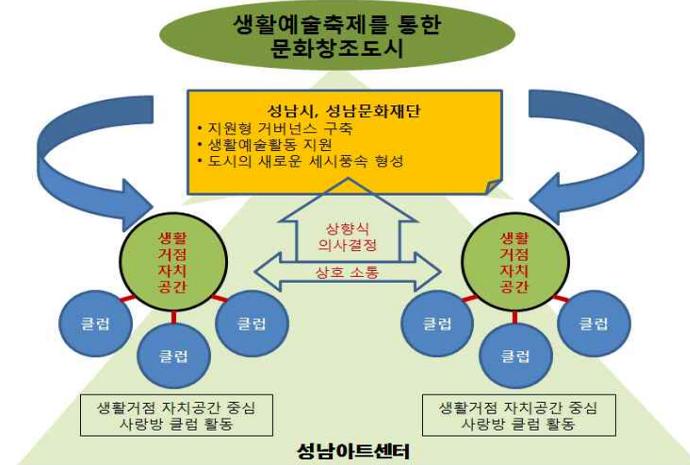
- 생활예술 건인지구 설정 및 운영
- 판교와 같은 관심지역을 '생활예술 건인지구'로 설정하여, 해당 지역 내 생활예술

인(클럽)들을 발굴하고 나아가 해당지역의 특색있는 축제 형성과 함께 중심단체로 지원

- 기업내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재단 및 시의 예산과 매칭시 보다 많은 효과 추정⁹⁴⁾
- o 생활예술클럽 활동과 지속을 담보하기 위한 모티브 개발

4.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지원 방안

1) 생활거점 자치공간을 중심으로 한 클럽 활동



<그림 21> 공간을 중심으로한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진행 모형

(1) 생활거점 자치공간을 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내 클럽의 활동 지원

- o 공간 자치의 방식과 원리는 자율의사
- o Bottom-up 방식의 의사가 수렴되면 이를 지원하는 행정체계 구축
- o 각 자치공간 내외의 연대와 소통 프로그램 제공(창조체험, 사회통합, 동아리프로그램 등)
- o 클럽자율 활동의 폭넓은 보장

(2) 지역주민이 제작하는 축제와 생활거점 자치공간의 적극적 활용

- o 성미산마을축제가 추진되는 원리와 마을공동체의 기본원리 추구
- o 거점공간을 통해 ‘학습, 즐김, 대화, 나눔’의 장을 마련
- o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 전문극장과 거점공간의 생태계 조성
- o 생활예술인의 활동은 전문예술인의 터전을 확장시키고 나아가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관계임을 인식

94) 생활예술 건인지구(가칭)에서 활동하는 생활예술 동아리와 사랑방클럽축제가 상호 결합하는 모델로서, 지역 내 사회공헌을 중심으로한 프로그램의 전파를 도모할 수 있음. 이는 나아가 다른 클럽의 활동목표를 지역사회 내 문화예술공동체 형성이라는 흐름으로 조성 가능

(3) 지원형 행정체계를 통한 축제 형성

- 축제행사뿐 아니라 일상적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체계를 통해 현대도시의 세시풍속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적·물적 토대 마련
- 행사발표 목적에서 탈피하여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서 축제 형성
-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

2) 클럽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 지원 조성 방안

(1) 각 클럽의 형성이유에 차등을 두지 않는 지원 방안 마련

- 각 클럽의 활동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체계
- 사랑방클럽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계기 마련

(2) 다양한 소통체계 구축

- 주민이 창출할 수 있는 체계와 행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맞물려진 환경 조성
- ‘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세시풍속 만들기의 작은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

(3) 공동체성 회복의 단계별 과정 구축

- 은평누리축제의 사례처럼 “숨은고수교실”과 같은 지역주민 발굴 프로그램 운영
- 생활문제(환경, 노동, 교육 등)가 발굴되고 해결되는 기초단위 프로그램 운영

<표 18> 축제운영 요소와 클럽의 운영 지원 모델

	배움클럽	친목클럽	공헌클럽	숙련클럽
모티브	•전문예술인과 배움클럽활동 연계	•발표와 향수의 기회 제공	•‘숨은고수교실’류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리더) 발굴	•전문예술인과 배움클럽활동 연계
소통	•직업별, 기호별, 장르별 다양한 모임 지원	•세대 간 대화모임 운영 및 참여	•축제기획자로 형성하여 소통의 중심형성	•축제기획자로 형성하여 소통의 중심형성
지역공동체성	•클럽 간 대화모임 운영 및 참여	•클럽 간 대화모임 운영 및 참여	•생활거점공간 운영 참여	•생활거점공간 운영 참여

3) 현대 도시생활의 세시풍속과 축제

- 입학, 졸업, 출산, 수능, 휴가와 같은 현대도시생활의 절기에 맞는 현대 도시생활의 세시풍속 혹은 기로연(나이 많은 노인들을 위로하고 예우하는 잔치), 성년식과 같은 세대통합형 통과의례 등을 반영하는 자발적 문화모임 및 행사가 추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예1) 거점공간에서 활동하는 클럽들이 만드는 지역행사 지원,
 - 예2) 회사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문화행사에 지역기획자의 조력을 통한 지역클럽 참여
 - 예3) 졸업식이 예정된 학교에 부모세대 클럽의 문화행사 지원 등
 - 예4) 지역 내 일정 연령 이상 노인들을 초대하여 예술잔치 나누기 등
 - 예5) 지역 내 성년을 맞는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잔치 마련: 부모 및 어른들의 덕담 등
- 나눔장터와 문화통화는 최근 환경과 경제공동체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되는 상황임. 이에 이를 일상적 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추진
 - 예1) 전자동호회의 그림나눔 장터 “모든 가정에 그림 한 점씩 가지자”
 - 예2) 자원활동과 문화통화의 결합 “자원봉사를 통해 작은 공연을 볼 수 있다”
 - 예3) 문화기관의 참여 “아트센터의 공연을 우리가 관람하면, 문화통화가 문화소외 이웃에게 건네져 그들도 ‘발레’를 볼 수 있다”
- 주민이 주민을 흡인하는 관계에서 성장하는 축제
 - 강제된 의무로 이행되는 기존 축제에서 벗어나 형식적으로 느슨하면서, 관계속에서 참여하는 클럽운영 및 축제의 진행
 - 주민간 연대를 통해 형성되는 축제로 도시재생의 동력 확인

4) 연대 프로그램 지원방안

- 일반시민참여형 예술프로그램 운영
 - 가족단위, 마을단위별 참가자 구성, 짧은 기간의 예술워크숍 및 발표, 하루 동안의 예술체험활동 등
 - 필요성
 - 사랑방문화클럽은 공동 관심사, 즉 특정 분야의 예술활동을 함께 하는 것과 클럽 구성원들 간의 돈독한 인화관계를 중심으로 지속된다. 두 요소는 클럽의 장기적인 발전에 모두 중요함
 - 워크숍은 클럽 구성원들의 기량을 발전시켜 클럽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한편, 구성원들 간의 인화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음

- 클럽의 구성원들은 평소에 각자의 본연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클럽 활동을 함
- 자체 행사, 한마당, 축제를 앞두고서는 평소보다 연습의 양이 많아지게 됨. 그러나 이러한 준비는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클럽 전체의 기량을 높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특정 행사를 위한 단기적 성과를 목표로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클럽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워크숍이 필요함
- 역할
 - 환기 refresh / 동기의 재발견 motivation
 - * 워크숍은 각 구성원의 활동 동기뿐 아니라 클럽 전체의 활동 동기를 재발견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함
 - * 특정 장르에 대한 연습에서 벗어나 예술적 창의성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임
 - * 이러한 워크숍은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예술활동이 자기만족을 넘어서 소속된 공동체를 보다 문화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을 깨우쳐 줄 수 있음
 - * 워크숍을 통하여 클럽과 그 구성원들은 시민생활예술이 시민사회, 도시공동체에 어떠한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지속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음
- 역량 강화 strengthen / 발전 upgrade
- * 평소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생각하면서도 미처 살펴보거나 연습하지 못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자기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각 구성원뿐 아니라 클럽 전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음
- 화합 harmony
- * 구성원들이 보다 여유 있는 상태에서 참여하고 만나면서 활동의 동기를 재발견하고, 기량을 성숙시키며, 시대의 변화를 살피고 자신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자아발견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
- * 이러한 프로그램은 구성원들 간에 보다 돈독하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클럽 구성원들이 화합할 수 있게 함
- * 또한 타 클럽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병행한다면, 클럽들 간에 상호이해를 높이고 관계를 더욱 우호적으로 돈독하게 하여 전체 클럽의 화합을 통한 탄탄한 네트워킹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음
- 미래 인력 육성 incubation / 아이디어 발견 ideas
- * 클럽의 장기적 발전과 지속성은 다름 아닌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인력의 양성과

동시대 시민사회 및 도시공동체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활동의 아이디어들을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데에 있음

- * 워크숍은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발전시키며, 입문자(new-comer)를 교육하고 훈련시킴으로써 훌륭한 클럽 구성원을 육성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음

□ 개 요

- 시행기간 : 연 1~2회
- 시행장소 : 성남아트센터 내 사랑방문화클럽 공간, 연습실 활용
- 워크숍 내용 - 프로그램
 - 창의성 함양 / 역량 강화 / 화합과 교류 증진 / 리더십 함양

□ 프로그램

- 구성원들의 예술적 창의성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 예술활동의 기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연습 프로그램
- 활동의 동기를 새롭게 발견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인지 프로그램
- 구성원들의 인적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클럽들 간의 교류 프로그램
- 타 지역, 혹은 전문인과의 콜레보레이션 프로그램
- 클럽지기, 운영진을 위한 프로그램 : 리더십, 클럽운영, SMART 사랑방(SNS, 모바일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클럽 운영 방안 모색) 등

□ 유의사항

- 기존 클럽활동은 자체 발표, 공헌활동, 한마당, 축제 등으로 구성원들이 상당한 피로도를 느끼고 있음. 이러한 상태에서 워크숍이 추가 프로그램이 되어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서는 안 됨. 프로그램 추가가 아닌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정비가 되어야 할 것임
- 구성원들이 피로도를 덜 느끼면서 보다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여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클럽의 연간활동에 대한 스케줄링을 다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활동에 소요하는 시간, 물리적, 정신적 투자에 대해서 효율적인 배분을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클럽지기를 포함한 운영진은 클럽활동 외에도 잦은 회의와 업무로 인하여 피로도가 더욱 높은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서 워크숍을 추가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거나, 클럽활동과 네트워킹 사업에 대하여 냉소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음. 따라서 클럽지기나 네트워킹 운영진을 위한 워크숍이 별도로 필요함
- * 클럽 연간 스케줄의 재조정

- △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 클럽, 네트워킹 모두 고려
- △ 우선순위에 따라 클럽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조정
- △ 구성원과 클럽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워크숍이 재충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함

- 사랑방문화클럽축제 (가칭) 명예의 전당 프로그램
 - 사랑방문화클럽 활동 및 축제활동에 공헌한 클럽구성원들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 자체 합동공연, 개별공연,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
 - . 전국 연대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 해외 연대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사랑방문화클럽 축제마실꾼 운영
 -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축제마실꾼 운영
 - . 이를 통한 축제모니터링 제도화
 - . 인터뷰, 모니터링 의견/ 리뷰 등의 유통 및 축제기획 반영
 - .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저변 확대
 - 사랑방문화클럽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축제마실꾼 운영
 - . 축제 참여클럽 구성원 중 마실꾼 선정
 - . 지역 혹은 장르 등의 동일성 등 연대가능성이 높은 클럽의 공연관람 및 리뷰
 - . 인터뷰, 모니터링 의견/ 리뷰 등의 유통 및 축제기획 반영
 - . 이를 통한 클럽 간 관계망 구축 및 성숙의 계기 마련

5) 예산(안)

(7년 총액예산 : 단위 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클럽 운영	생활거점 자치공간	3개구×10개소×보증금50,000천원	1,500,000	
	국제초청	10개국×2개생활예술팀×초청비10,000천원	200,000	
축 제 유 영	추진위운영	7년×20회×10인~15인×1식	200,000	
	네트워크 지원	3개구×10팀×7년×1,000천원	210,000	
	전문예술가 및 리더 양성	7년×400,000천원	2,800,000	
	교육	7년×40,000천원	280,000	
	축제진행	7년×300,000천원	2,100,000	
	원탁회의 조례 기금 등	7년×100,000천원	700,000	
평가 운영	포럼운영	2개포럼×3회×10,000천원	60,000	
합계			8,050,000	

6) 연도별 추진 계획

연도	축제 회차	추진 계획
2014	8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럽발굴 확대 / 중장기 비전 및 도시 비전 수립 ■ 슬로건 구축 ■ '배움-친목-공헌-숙련'클럽의 구분에 따른 축제 ■ 도시세시풍속 1회차
2015	9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예술축제 포럼 ■ 생활예술 견인지구 클럽 발굴 및 참여유도(예:판교) ■ 사랑방클럽 지역별, 장르별, 네트워크별 축제 ■ 도시세시풍속 2회차
2016	1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 각 장르별 경쟁 축제(모티브 구축) ■ 거점공간 중심활동을 통한 활성화 행사 ■ 도시세시풍속 3회차
2017	1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예술축제 포럼 ■ 성남 각 지역간 경쟁 축제(공동체,연대감 형성) ■ 도시세시풍속 4회차
2018	1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 사회공헌 축제(지역성 회복) ■ 사랑방클럽 국제축제 개최를 위한 3개년 이행방안 수립 ■ 도시세시풍속 5회차
2019	1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예술축제 포럼 ■ 축제운영위원회 확대운영(도시세시풍속 축제운영에 따른 상설) ■ 민관거버넌스 생활예술축제 행정지원체계 구축 ■ 도시세시풍속 6회차
2020	1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창조도시 선포 ■ 일본, 영국 생활예술 축제 참가팀 초청(퍼레이드) 등 국제축제 ■ 도시세시풍속 7회차

<참고 자료>

1. 저서, 보고서, 논문

김미연 외, <축제 속의 프랑스, 프랑스 속의 축제>, 대전: 궁미디어, 2012

김재경, <화창공동체 활성화 연구방안>, 대구경북연구원, 2010

김정옥,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형성과정에서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성미산마을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일반대학원 도시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라도삼, <마을문화운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2012

류정아, <축제 인류학>, 파주: 주)살림출판사, 2003

“ <축제의 원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류정아 외,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류정아, <한국 축제와 지역문화 콘텐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문화부,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연구지원팀(강윤주 외), 2012

박동준, <한국 축제의 명칭과 변용에 관한 고찰>, <축제 정책과 지역 현황: 축제의 이론적 정립과 새로운 축제 모형 창출을 위한 학제적 접근 3>』,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박소현 외, <문화예술분야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박승현, <문화예술과 여가를 통한 국민행복>, 문화관광정책연구원 토론회 자료집, 2013

박승현, <시민의 자발적 문화활동과 문화공론장의 구조변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2)

박혜정, <기성시기까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성미산마을 환경설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백선혜 외,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 방안연구>, 서울연구원, 2008

백원근, <일본의 국민문화제>, 아르코, 2001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만들기 기본계획 연구>, 2006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클럽 발전방안연구>, 2006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5대정책 연계발전 방안 연구: 창조시민, 창조공간, 창조도시>, 2008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5대정책 2단계 5개년 발전계획 연구>, 2009

성남문화재단,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 개발>, 2010

송지선, <대안적 마을 공동체에 있어서 축제의 의미와 기능>,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심보선, <새로운 예술과 문화공동체>, 『008 문화정책 대화모임 자료집』, 성남문화재단, 2008.

심보선 · 강윤주,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의 유형과 기능 분석: 성남시 문화클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2010

안진근, <문화도시 공공디자인>,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에이 기세이, 모토스키 쇼조, <살아 숨쉬는 극장>, 연극과 극장, 2008

이미순, <축제가 도시 브랜드를 만날 때>, 서울: 새로미, 2010

이자성, <일본 지역 공동체 경영을 위한 주민참여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한국행정학회(경남발전연구회), 2010

이진교, <도시 축제의 실행과 참여집단: 일본 삿포로 ‘요사코리 소란 마츠리’의 민속지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 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오혁진, <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 파주: 집문당, 2006

유민선, <마을공동체 형성·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집단학습에 관한 연구: 성미산마을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1

유창복, <우린 마을에서 논다>, 또하나의 문화, 2010

<도시 속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연구: 성미산 사람들의 ‘마을하기’>, 성공회대 NGO대학원 시민사회단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성미산마을극장에서 커뮤니티 아트를 생각한다> 발제문 수정본, 2010.

윤소영 외, <공동체 활동 관련 사례분석 및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전병태 외, <커뮤니티 아트 진흥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전수환, <성남시민주제의 창조도시 방향성>, 『2009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 대화모임 자료집』, 성남문화재단, 2009

전수환·박승현, <시민주도의 창조도시 만들기-수도권 중소도시로서의 성남사례>, 『한국문화경제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 “문화예술과 도시발전” 자료집』, 한국문화경제학회, 2008

정경운 외,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서울지역 문화예술회관의 고유 역할과 운영 방향성에 관한 연구>,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2012

정근식 외, <지역민주주의와 축제의 관계>, 서울: 도서출판 중원문화, 2010

정상우 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례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정인선, 최영, <일본 문화관광 정책: 2011년과 2012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정종은,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연구>, 성남문화재단, 2013

투안, 이푸, <공간과 장소>, 구동희, 심승희 역, 서울: 대운, 2005

한양명, <축제와 놀이>, 『韓國祝祭의 理論과 現場>, 서울: 월인, 2000

<축제민속지 작성을 위한 구상>, 『民俗研究』,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2권, 2013

한주희, <근린조직을 통한 좋은 거버넌스의 실현: 성미산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황달기, <일본의 축제와 지역사회>, 서울: 제이앤씨, 2011

요한 호이징가 저/이종인 역, <호모 루덴스>, 연암서가, 2011

2. 인터뷰

짱가 유창복(서울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서교동 카페, 2013. 10. 14

빼빼 허선희(성미산마을문화예술활동가), 릴라healing&art 사무실, 2013. 10. 29

3. 웹사이트

(사)사람과 마을 http://cafe.daum.net/sungmisanpeople?t_nil_cafemy=item

성미산마을극장 <http://cafe.naver.com/sungmisantheater>

은평시민의신문 홈페이지. http://www.epnews.net/sub_read.html?uid=12383§ion=section3
은평누리 축제 페이스북. www.facebook.com/nuricarnival

은평시민신문.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자구요! - 박인배"
http://www.epnews.net/sub_read.html?uid=11033§ion=section4§ion2=

은평구평생학습관 "숨은고수교실" http://edu.eunpyeong.go.kr/sub4/sub4_2_1.asp
은평경제신문. <http://goo.gl/KUaerv>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http://en.wikipedia.org/wiki/National_Cultural_Festival
유알아트 홈페이지. www.urart.org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창조도시’ 3단계 7개년(2014~2020)

성남시 생활예술축제 발전방안 연구 : 사랑방문화클럽축제 발전방안 연구

발 행 인 : 신 선 희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편 집 인 : 하 동 근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

발 행 처 : 성남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808 성남아트센터

www.snart.or.kr

인 쇄 처 : 진흥문화(주)

발 행 일 : 2013. 12. 13

© 성남문화재단